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HELLO NEXEN



NEXEN facebook



www.nexentire.com

HELLO NEXEN
Vol.61 2015년 가을호

가 을 , 바 람 이 분 다

따갑던 햇볕이 사그라들고
어느새 불어온 선선한 바람이 귓가를 간질입니다.
뜨거운 땀으로 달려온 날들을 지나보내고
잠시 숨 고르는 시간.
곧 매서운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미 알기에
이 무겁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바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바람을 마음 가득 담아주세요.
어느 힘든 날, 조금씩 꺼내 나를 다독일 수 있도록.



Innovation Nexen

- | | | |
|----|---------|-------------------------|
| 04 | 온에어 | 기억될 우리의 15년, 기념될 우리의 미래 |
| 08 | 넥센 뉴스 | 넥센타이어의 이모저모 |
| 12 | 글로벌 넥센 |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태리법인 |
| 14 | 안전 가이드 | 가을 산을 만끽하는 법 |
| 16 | 카 앤 타이어 | 쉽게 이해하는 엔진오일 |
| 20 | 넥센 프렌즈 | 타이어테크 연무점 |

Special Nexen

- | | | |
|----|-------------|-----------------------------------|
| 24 | Open | 경기의 흐름을 읽고 팀을 아우르다. 포수 |
| 26 | Read | 경기를 움직이는 킹 메이커, 포수는 참모다 |
| 30 | Meet | 우리의 에너지 · 넥센의 시너지, 넥센히어로즈 치어리더팀 |
| 34 | 나눔 그리고 공유 | 서울사무소 사우들의 장애 청소년 사회적응 활동 |
| 38 | 팀 스토리 | 안양지점 사우들의 아름다운 비행 |
| 42 | 멘토 앤 멘티 | 재료파트 신병철 · 정명진 사우의 '우리 친구아이기!' |
| 46 | N Hero | 공정연구팀 최상현 사우 가족, 우리 가족 삼둥이 슈퍼히어로! |
| 50 | 좋은 아빠 프로젝트 | 사춘기 자녀와 툭 터놓고 대화하는 방법 |
| 52 | N Talk Talk | 넥센인의 선택, 당신의 여행 타입은? |
| 54 | N's Choice | 내 인생 최고의 영화 |

Joyful Nexen

- | | | |
|----|----------|----------------------------|
| 56 | 포토 콘테스트 | 나의 뜨거운 여름 이야기 |
| 60 | 미각 예찬 | 얼큰하고 알싸하다! 중독성 강한 매운 요리 맛집 |
| 64 | 1박 2일 여행 | 하늘과 맞닿은 낭만 여행지, 강원 태백 |
| 70 | 행복 나들이 | 정련파트 백종욱 사우 부부의 오붓한 스파 타임 |
| 74 | 클릭 재테크 | 누구나 알기 쉬운 틈새 재테크, 세관공매 |
| 78 | 건강 대백과 | 바야흐로 걷기 본능을 일깨울 때 |
| 80 | 탐나는도다 | 넥센인 추천 애플리케이션 |
| 82 | 에코 라이프 | 은빛 여우 망토 담요 |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5년 가을호 통권 61호
발행인 이현봉
발행일 2015년 10월 1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
담당 경영관리팀 박수현 (055-370-5283)
기획 및 출판 (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디자인 노은주, 장윤희, 이예슬
사진 (주)유닉하우스 (02-511-9205)
교정 정수완
표지 일러스트 김수민
프로세스 하이테크컴 (02-741-3377)
인쇄 (주)두경프린텍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넥센그룹은 천년 기업을 향해
힘찬 내일을 준비합니다

함께 도전한 15년, 함께 도전할 100년
**기억될 우리의 15년,
기념될 우리의 미래**



지난 7월 24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그랜드볼룸 연회장에서 넥센그룹
출범 1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억될 우리의 15년, 기념될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뜻깊었던 넥센그룹의 출범 15주년 기념식, 그 현장을 담았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넥센



The History of Legend



Hello NEXEN



넥센타이어의 저력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



내일을 생각하는 기업, 내일을 준비하는 기업,
내일의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

우성타이어



글로벌 TOP을 향한
힘찬 도약





전사 임원 및 팀장 리더십 과정 시행

넥센타이어의 전사 리더십 과정이 지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부산과 양산에서 국내 임원 및 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고 혁신', '미래 지향', '자기 성찰'의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과정은 관점디자이너 박용후 마케팅 전문가의 강의로 시작됐다. 이외에도 아트컨설턴트, 미래학자, 영화평론가, 전통문화예술단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Global Top Tier2 도약을 위한 리더의 술선수법과 혁신의 마인드를 당부하는 대표이사 특강으로 이번 과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강의에 참여한 임원과 팀장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과 조직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리더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업계 최초 신개념 타이어 렌탈 서비스 시행



넥센타이어가 업계 최초로 '타이어 렌탈'이라는 신개념 서비스 시대를 열고, 고객이 차종에 따라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넥스트레벨(NEXT LEVEL)'을 실시했다.

'넥스트레벨'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타이어를 렌탈하고 정기적인 타이어 점검 및 차량 관리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소형 차종부터 대형 차종, SUV 차종까지 총 8개 패턴, 153개 규격의 타이어를 최저 월 4,4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렌탈 기간은 12개월, 24개월, 36개월로 고객의 운전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최초 등록비는 5만 원이며 기간이나 타이어의 개수, 규격에 따라 비용은 조금씩 달라진다.

이와 함께 전문 점검 요원인 '미스터 로디안'이 타이어 렌탈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고객의 자택 및 직장 등에 직접 방문해 차량 10대 항목을 정기 점검하는 서비스, 자택 및 직장 등에서 차량을 인수해 차량 점검 및 위치 교환 서비스 후 돌려주는 'Door To Door' 서비스, 엔진오일(고급 합성유) 3회 교환 및 타이어 위치 교환 등의 무상 서비스, 차량 수리 발생 시 정비 공임의 30% 할인 서비스 등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넥센타이어는 우리카드와 업무제휴를 통해 '넥센타이어 우리카드'를 출시해 사용실적에 따라 월 렌탈 요금을 할인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렌탈 요금 할인 외에도 테마파크, 영화관,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할인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 및 전문점의 위치는 홈페이지(www.tirerenta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스바겐 신형 '캐디(CADDY)'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넥센타이어가 폭스바겐이 올해 새롭게 출시한 신형 '캐디(CADDY)'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시작했다. '캐디'는 지난 11년간 전 세계적으로 150만대 이상 판매된 폭스바겐의 주력 상용차 모델로, 폴란드의 포젠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델에 넥센타이어의 '엔블루 프리미엄' 제품이 장착된다. '엔블루 프리미엄'은 화려한 유폴리언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2015 독일 디자인 어워드 특별상을 받은 제품이며, 연비 효율성이 강화된 친환경 타이어다.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넥센타이어가 지난 8월 6일,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시티풋볼아카데미에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최강팀 중 한 곳인 맨체스터시티 FC(이하 맨시티)와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넥센타이어는 선수단 이미지 사용권 및 후원 권리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유럽 및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맨시티 홈구장인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열릴 때마다 디지털 보드 등을 통해 넥센타이어 브랜드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해 온 넥센타이어가 고객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유럽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강호찬 사장은 “맨체스터시티 FC와의 파트너십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넥센타이어를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맨시티의 CEO 페란 소리아노 또한 “이번 파트너십이 양측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데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英 맨체스터시티 FC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

FCA(피아트-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사 ‘Outstanding Quality Performance’ 수상



넥센타이어가 FCA(피아트-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사로부터 ‘Outstanding Quality Performance’를 수상하며 글로벌 공급 품질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Outstanding Supplier Quality Award’는 FCA가 매년 글로벌 부품 공급 업체 중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글로벌 1,500여개 공급 업체 중 타이어는 4개 업체의 5개 공장지가 선정되었으며, 국내 타이어 업계에서는 넥센타이어가 유일하게 창녕, 양산 공장 2곳이 선정되며 품질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 받았다.

넥센타이어는 FCA사에 ‘올 뉴 200’과 ‘램 3500’, ‘램 프로마스터’, ‘500X’, 그리고 ‘듀카토’ 등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타이어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넥센타이어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엔페라컵’ 5라운드인 지난 9월 13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됐다.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엔페라컵’은 국내 유일하게 승용차량과 RV 차량이 모두 참가하는 대회로 프로와 세미 프로, 아마추어 레이스 등 선수들이 자신에게 맞는 클래스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다.

이번 라운드에는 총 10개 클래스에 승용차량 150대, RV차량 60대 등 다양한 차량이 참가했으며, 마지막 6전을 앞두고 주요 클래스별로 경쟁자들의 득점 차이가 크지 않아 정상을 향한 더욱 열띤 승부가 펼쳐졌다.

이와 함께 경주장 체험주행, 경품 행사 등 다양한 기획행사를 통해 경주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경기 관전 이외에도 다양한 즐거움을 맛봤다.

그 밖에도 네이버 스포츠 및 다음 TV팟, 아프리카TV 인기 채널인 OMGTV 생중계를 통해 경기장에 오지 못하는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치열한 승부의 현장을 보여주었으며, SBS스포츠 녹화중계방송을 통해 모터스포츠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엔페라컵’ 5라운드 개최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 Cars) 참가

넥센타이어가 지난 9월 15일부터 27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 Cars)’에 참가했다.

격년으로 홀수해마다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완성차를 비롯해 관련 부품, 기계 장비 등을 전시하는 유럽 최대의 모터쇼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전시회에서 미래로 가는 원형을 모티브로 부스를 디자인하고 총 13개 제품을 썬머, 윈터, 테크놀로지, 그리고 OE타이어 4개 존으로 구분해 전시했다. 특히 테크놀로지존에서는 런플랫, 실런트, 흡음제, 천연오일 타이어 등을 전시해 기술력을 뽐냈다.

16일 프레스데이에는 원가드 WH2, 엔블루 HD Plus 두 제품의 신제품 발표회와 글로벌 신차용 타이어 공급현황 등 넥센타이어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넥센타이어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시티 FC와의 스폰서십을 활용해 방문객들을 위한 축구 이벤트 및 부스 벽면과 외부 모바일 옥외 광고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태리법인

맛과 멋의 나라 이탈리아 북쪽에 위치한 밀라노는 누구나 동경하는 명품 도시다. 도시의 상징인 대성당 두오모부터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 도시를 가로지르는 오렌지색 트램까지 어느 하나 여행자들의 눈을 사로잡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이토록 멋진 곳에 넥센타이어를 녹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있다. 밀라노의 자랑스러운 넥센인, 이태리법인의 하루를 따라가보자.



다양한 얼굴을 가진 나라, 이탈리아

과거 로마제국을 통해 법률, 건축, 종교 등 유럽 문화의 뿌리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던 이탈리아. 장화를 옮겨놓은 듯한 긴 국토 모양만큼이나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그중에서도 이태리법인이 있는 밀라노는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업 중심지로서 역사와 문화 이외에도 패션을 대표하는 도시이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통이 깊은 곳이다. 고딕 양식의 건축물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두오모'와 소설 <다빈치 코드>로 더 유명해진 '최후의 만찬'의 원작이 있는 곳이며, AC 밀란과 인터 밀란 등 세계적인 축구팀이 소속된 자존심 강한 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이탈리아는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일반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주문하면 전채요리(Antipasto), 제1요리(Primo Piatto), 제2요리(Secondo Piatto), 디저트(Dolce) 순서로 나오는데, 흥미로운 점은 파스타가 제2요리를 먹기 전 배를 채우기 위한 제1요리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피자는 이탈리아 코스 요리에 포함되지 않으며, 메뉴판에서도 따로 표시된다.

이태리법인의 일상

매일 오전 8시, 아침 인사 "Buon giorno!"와 함께



이태리법인의 하루가 시작된다. 총 14명으로 이루어진 이태리법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업, 영업 관리, 마케팅, 인사·총무와 경영 관리 등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궁극적으로는 경영 계획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국토가 넓고 길어 지역별 담당을 두고 밀착营业을 진행하고 있는 RE 영업은 중부 지역 담당 David Pistolesi, 남부 지역 담당 Angelo Turitto, 북서부 지역 담당 Gianluca Roberto, 북동부 지역 담당 Enrico De Poli, 시칠리아 & 칼라브리아 지역 담당 Francesco Russo 및 전체적인 영업 활동을 조율하는 영업 총괄 매니저 Giancarlo Di Piazza 등 6명이 맡고 있다. 그리고 OE营业을 담당하고 있는 Marco Ricci는 피아트와의 물량 확대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Orietta Rocca와 Sabrina Melone는 이들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며, 오더 관리 및 수출입 업무와 관련한 거래선, 본사와 원활한 소통을 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 밖에도 가격 및 제품 분석을 통해 영업맨들에게 새롭고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Achille Spinella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이탈리아 시장에 넥센타이어를 알리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Claudia Mercaldi, 인사·총무를 맡아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황혜연 과장 등 모두가 이태리법인의 소중한 인적 자원임이 틀림없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른 유럽인에 비해 모르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질 만큼 사교성이 좋고, 남들과 허물없이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이러한 성향은 굳이 정형화된 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 관련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법인 내 팀워크 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전체 팀원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 나은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 전, 직원들과 이탈리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본다.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도 갖는 것이다. 최근 이태리법인은 판매 법인화를 통해 다시 한 번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비록 아직은 작은 조직에 불과하지만 한윤석 법인장을 필두로 모두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길 바라며, 이태리법인 화이팅!🇮🇹



가을 산을 만끽하는 법

안전 또 안전



평소 등산을 즐기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단풍으로 붉게 물드는 가을 산 자태에는 마음을 빼앗기기 마련. 특히 양산공장 인근에는 알프스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이름 붙은 ‘영남알프스(가지산 · 운문산 · 천황산 · 신불산 · 영축산 · 고현산 · 간월산)’가 자리하고 있어 사우들의 발걸음을 유혹한다. 하지만 준비 없이 설레는 마음만 가지고 산에 오른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국립공원관리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10월에 산악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가을철 산악 사고는 연평균 15% 정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 원인도 음주 산행, 준비운동 부족 등 ‘설마’에서 비롯된 부주의가 많다. 가을 산행을 계획하기 전 꼼꼼히 챙겨야 할 안전 수칙을 알아본다.

산행 중에는 절대 음주 금지

가을 정취에 취하다 보면 애주가들은 금세 술 한잔이 간절해진다. 하지만 산행 중은 물론 산행 전의 음주는 절대 금물.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등산로를 벗어나

평소에 엄두도 못 내던 고난도 코스로 들어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리의 힘이 풀려 넘어지기 십상이다. 등산 중 음주 사고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중상을 입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딱 한 잔 술’이 ‘평생 후회’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자.

즐거운 산행을 도울 필수 장비

낙엽이 쌓인 등산로를 걸을 때에는 등산로 표면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목을 접질리거나 넘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 흡수는 물론 마찰력 좋은 밑창의 등산화는 필수. 또한 건조한 날씨 탓에 풀이나 나뭇가지에

손이 쓸려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등산 장갑을 준비한다. 등산 스틱 역시 가을 등산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 낙엽이 쌓여 잘 보이지 않는 등산로를 짚어보고 확인할 수 있을뿐더러 체중을 분산해 피로감을 덜어준다.

준비운동과 응급처치 알아두기

장시간의 등산은 근골격계 부상 및 심혈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산행 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여 근육을 풀어주어야 하며, 출발 전 15~20분 정도는 땀이 날 때까지 맨손체조를 한다. 만약 발을 잘못 딛거나, 인대에 무리가 생겨 염좌가 발생하면 복사뼈 부분이 부어오르고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때 손수건에 물을 묻혀 냉찜질을 하도록 한다. 여의치 않다면 그늘에 있던 흙을 비닐봉지에 담아 발목에 댄다. 냉찜질 후 손수건이나 봉대로 발목과 발바닥을 교차하여

감아주고 등산화 끈도 최대한 조여 발목을 고정해준다. 심하게 조이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발목 상태를 체크하며 천천히 하산한다.

등산은 여유롭게, 무리한 코스는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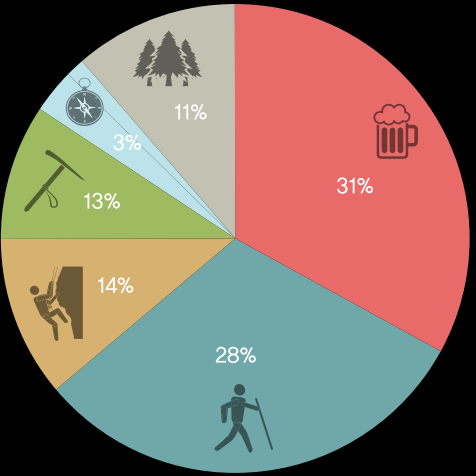
가을 산은 일교차가 크고 날씨 또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등산 중 비가 내려 옷이 젖으면 저체온증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보온성이 뛰어난 여벌 옷을 준비한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급작스럽게 35℃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몸이 심하게 떨리는 동시에 호흡곤란이 오며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탈진 상태에서 저체온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등산은 무리하게 하지 말고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속의 어둠은 평소보다 빨리 찾아오므로 일몰 시간 한두 시간 전에는 하산한다.

휴식은 자주, 하산 시에는 부상 조심

산을 내려올 때는 다리 근육이 많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추락해서 크게 외상을 입을 경우엔 최대한 몸을 적게 움직이며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 무리하게 움직일 경우 신경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추락 사고 환자를 발견하였다면 환자를 안정시키고 119에 신고한다. 하산 시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고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다.

가을철 전염성 질환에 유의

매년 가을철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가을철 야외 활동과 관련된 전염성 질환으로 들쥐의 배설물을 통해 옮는 ‘유행성출혈열’, 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걸리는 ‘쯔쯔가무시병’, 오염된 개천이나 강물에 의한 ‘렙토스피라병’ 등이 있다. 세 가지 질환의 병원체와 감염 경로는 각각 다르지만 초기에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심한 몸살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 시 풀밭에 눕거나 옷을 아무 데나 벗어놓지 않는다. 산행 후에는 꼭 샤워를 하고 옷은 깨끗이 빨아야 한다.📌



- 가을 산행
안전사고의
원인
- 1위 음주 산행 (31%)
2위 무리한 산행 (28%)
3위 실족, 추락(14%)
4위 등산 장비 미비(13%)
5위 조난 (3%)
기타 (11%)

쉽게 이해하는 엔진오일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엔진오일 선택 문제. 엔진오일 용기에는 성능을 대변하는 수많은 알파벳과 숫자가 표기되어 있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엔진오일의 역할과 각종 정보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엔진오일이란?

엔진오일은 원유의 일정한 처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기유(Base Oil)에 첨가물을 혼합하여 만든다. 엔진을 원활하게 회전시키는 윤활제로서 항상 적당량을 유지해야 하고 적당한 시기에 교환해야 한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엔진오일의 기능으로 엔진 가동에 꼭 필요하다는 것과 기계적 마찰을 감소시킨다는 정도를 알고 있지만, 엔진오일은 이 밖에도 많은 일을 한다.

| 윤활 작용 | 엔진은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마찰에 직접 관여하는 부품은 피스톤 링, 피스톤 스커트, 밸브 트레인 및 각종 베어링 정도다. 이 부품들은 마찰로 인해 힘의 손실을 발생시키는데, 엔진오일은 각 부품에 얇은 유막을 형성해 부품의 직접 접촉을 막아 표면의 마찰, 마모 및 힘의 손실을 감소시킨다.

| 밀봉 작용 | 실린더를 왕복운동 하는 피스톤에는 일반적으로 압축 링 2개와 오일 링 1개가 설치되어 있다. 압축 링은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 기밀 유지 역할을 하고 오일 링은 실린

더 벽을 윤활하는 여분의 엔진오일을 긁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때 엔진오일은 오일 막을 형성해 압축 링의 기밀 유지 작용을 돕는다. 기밀 유지가 불량하면 출력 감소와 같은 엔진 문제와 블로바이 가스에 의해 엔진오일의 질화(Nitration)가 가속화되며 이는 엔진오일 수명 단축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 냉각 작용 | 엔진오일의 비열은 물의 약 2분의 1, 열전도율은 약 5분의 1로 냉각제로서의 기능은

물보다 떨어지지만, 부품의 마찰로 인해 발생한 열을 열전도를 통해 10% 정도 냉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뜨거워진 엔진오일은 오일 팬으로 되돌아가 방열한다.

| 청정 작용 | 엔진 마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소 생성물, 외부로부터 들어온 먼지와 쇳가루 등의 불순물을 흡수해 엔진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한다. 각종 오염 물질을 흡수한 엔진오일은 오일 스트레이너와 오일 필터를 통해 깨끗하게 걸러진 후 다시 순환한다.

| 응력 분산 작용 | 엔진의 폭발행정 및 이상연소로 인한 노킹 등의 이유로 순간 큰 압력이 발생하면 유막이 파괴된다. 유막이 파괴된 곳은 고착을 일으키는데, 엔진오일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압력을 오일 전체에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 방청 작용 | 엔진 내 유막을 형성하여 공기, 부식성 가스와 수분의 침투를 방지하고 치환하는 작용이다. 방청 작용이 불량하면 녹이 슬거나 부식이 발생해 엔진에 많은 문제를 불러온다.

| 소음 감소 작용 | 엔진 내 각종 가진력 및 연소 소음원은 복수의 전달 경로를 거쳐 엔진 구조체를 가진다. 이때 엔진오일이 각종 진동(기계 소음)을 흡수해 소음 방시원에서 방출되는 소음을 감소시킨다.



광유와 합성유

엔진오일의 기유는 API(미국석유협회: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규격에 따라 Group 1부터 Group 5까지로 나뉜다. Group 1~3은 황 함유량 · 포화도 · 점도 지수에 따라 구분되며, Group 4는 폴리 알파 올레핀(Poly Alpha Olefin, PAO)을 기유로 사용하며, 그 외 기유(Ester 등)는 Group 5로 분류한다. 그룹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정제 과정을 거치며 성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광유는 Group 1~2 기유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며, 불순물이 많고 분자량이 일정치 않아 저온 및 고온 특성이 좋지 않다. 반면 Group 4~5 기유를 이용해 만드는 합성유는 분자량이 일정하고 결합력이 커 광유보다 기본 성능이 좋고 외란에 강해 수명이 길다. Group 3을 기유로 만들어진 엔진오일도 합성유라 칭하지만, 성능은 Group 4에 비해 떨어진 다.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확인하면 사용된 기유, 성능과 첨가제 정보를 알 수 있다.



엔진오일 규격

엔진오일은 크게 오일이 흐를 때 발생하는 내부저항 또는 마찰의 크기를 나타낸 점도 규격과 윤활부의 마모, 퇴적물 생성 정도, 연료 절감 등 수십 가지 성능을 테스트하여 나타낸 성능 규격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점도 규격 | SAE(미국자동차공학회: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는 저온 특성 등급(0~25W: -35~-10℃ 기준)과 고온 특성 등급(16~60W: 100℃ 기준)을 규정해 사용하고 있다. 요즘은 편의성과 자동차가 사용되는 환경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5W20과 같이 저온과 고온 특성이 뛰어난 멀티그레이드 오일을 사용한다. W 앞의 숫자가 낮을수록 저온에서 유동성이 좋아 특히 겨울철 초기 시동 시 엔진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고, W 뒤의 숫자가 높을수록 고온에서 너무 묽지 않아 고부하 차량에 적절한 유막을 형성할 수 있다. 다만 멀티그레이드 오일은 사용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저온과 고온의 점도 특성을 상실해 가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성능 규격 | 자동차 메이커의 성능 규격을 제외한 대부분의 엔진오일은 API, ILSAC(국제윤활유표준화위원회: International Lubricants Standardization and Approval Committee) 및 ACEA(유럽자동차공업협회: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등급으로 성능을 구분한다. 각 등급은 가솔린엔진과 디젤엔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API와 ILSAC는 가솔린엔진에 주로 사용되고 ACEA는 디젤엔진에 주로 사용된다. 각 등급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엔진오일은
차량이 요구하는
성능과 자신의
운전 습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선택한다.

구분	등급	비고
API	SA, SB, SC, SD, SE, ... SM, SN	가솔린엔진
ILSAC	GF-1, GF-2, GF-3, GF-4, GF-5	API 규격의 상위 개념
ACEA	C1, C2, C3, C4	후처리 장치 장착 엔진

각 등급은 엔진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규정되고 있으나 최신 등급의 오일이 현재 운전하는 자동차에 꼭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가장 좋은 등급은 자신의 차량 매뉴얼에 이미 나와 있다.

효과적인 오일 선택 방법

지금까지 엔진오일의 역할, 구분하는 방법, 물성 정보와 등급에 관해 알아보았다. 그럼 이제 효과적으로 엔진오일을 선택해보자.

첫째, 자신의 차량이 요구하는 성능과 점도 등급을 차량 매뉴얼을 통해 확인한다.

둘째,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성능 등급을 만족하는 엔진오일을 찾아 정리한다.

셋째, 정리한 엔진오일 중 자신의 운전 습관 및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해 매뉴얼 규정 내에서 원하는 점도의 엔진오일을 선택한다. (예: 기존에 사용하던 엔진 오일이 10W30일 때 겨울철 초기 시동 마모를 줄이고 싶다면 0W30으로 교체)

넷째, 그렇게 추린 엔진오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엔진오일 성능 확인과 더불어 제품 가격 등의 추가 정보를 종합적으로 놓고 최종 선택한다.

다섯째, 선택한 엔진오일을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계속 같은 엔진오일을 사용하고, 그게 아니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 다른 엔진오일을 선택한다.

한정된 페이지에 많은 정보를 담지 못했지만, 엔진오일 관련 기초 지식이 늘어 엔진오일 선택이 조금은 수월해지길 바란다.⁹⁾





넥세니 대리점 방문기

타이어테크 연무점

넥세니가 소개하는
타이어테크 연무점.
논산 훈련소 앞에 자리해
입대나 면회 시 가족들의
차량 점검을 책임지는,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대리점이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타이어테크
연무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꽃보다 직원

대표
김충범

안녕하세요?
타이어테크 연무점을
운영하는 김충범
대표입니다. 매장의 전반적인
업무와 영업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들른 고객들이 언제나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부장
김태길

안녕하세요.
기술부장
김태길입니다. 어려
보여도 정비 기술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제 손을 거친
자동차들이 모두 안전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러니
언제든 연무점에 믿고
맡겨주세요!

기술지원
유선호

안녕하세요! 기술지원
유선호입니다. 연무점 바로 앞에
있는 논산 훈련소로 입대해서
그런지 매장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요. 아직 막내이지만 저희 지점이
최고로 거듭날 수 있게 열심히 배우며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회의 중



화기애애

자, 오늘 하루도 파이팅!



수리 중



아~ 여기가 문제였네요. 한 번 볼 때 확실하게 손봐야죠. 또 봐드릴 곳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꼼

꼼

무엇보다 타이어 점검이 가장 중요해요.



탕탕

와~ 정말 세심하게 수리하는구나~!



친~절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꼼꼼히 봐드릴게요!



고객님~ 수리 다 끝났습니다. 혹시 이상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들려주세요! 바로바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오~

사후 관리까지? 정말 확실하네!



수리 끝



항상 연무점만 오는데 올 때마다 정말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해요. 최고!



국군 장병들이 완벽한 군인이 되기 위해 거치는 논산 훈련소. 그 앞에 자리한 타이어테크 연무점은 입대나 면회 시 먼 길을 오가는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다. 또한 주 고객층도 부사관, 장교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차량 수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한다고. 매장을 나서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충범 사장님의 소신답게 수리를 받고 돌아가는 고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오픈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가파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타이어테크 연무점. 내년에는 반드시 최우수지점 상패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들의 바람대로 승승장구하길 기원한다.㉮

경기의 흐름을 읽고 팀을 아우른다,

포수

경기 중 투수가 흔들린다. 그를 다잡기 위해 가장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누구일까? 감독? 코치? 아니다. 그와 마주 보는 자리에 있는 사람, 포수다.

그라운드가 한눈에, 포수의 자리

그라운드의 '안방마님', 흔히 포수를 부르는 말이다. 포수(捕手)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공을 잡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그 말뜻만으로 포수의 역할을 제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야구에서 감독이 아버지 역할을 한다면 포수는 그라운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챙기는 어머니 역할을 맡는다. 포수는 얼굴을 보호해줄 마스크,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 등 5kg이 넘는 장비를 착용하고 그라운드에 오른다. 모든 선수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한

그들은 3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한다. '적'인 타자에게 공을 던져야 하는 투수와는 마주 보고, 타자와는 가장 가까이 있는 포수는 '그라운드의 사령관'이라고도 불린다. 포수의 역할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 포수는 타자와의 승부처 최전방에 있다. 타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려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투수의 임무라면, 그 투수와 사인을 주고받으며 어떤 공으로 타자를 상대할지 결정하는 것이 포수다. 이때 포수는 감독의 사인을 받아 전달하기도 하고, 자신의 기량으로 승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포수 출신 감독들이 성공한다?

프로야구 감독 중에는 대대로 포수 출신이 많고 그 면면도 화려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국가대표팀 사령관이었던 NC다이노스의 김경문 감독, KIA타이거즈 시절 우승을 경험한 KT위즈의 조범현 감독, 감독 재임

첫해에 두산베어스를 상위권에 올려놓은 김태형 감독 등이 모두 포수 출신이다. 포수는 투수의 공을 받을 뿐 아니라 홈 플레이트도 지켜야 한다. 눈앞에 있는 타자와의 싸움에 정신 팔려 아웃카운트, 볼카운트 등 전체적인 상황을 잊었다가 주자가 홈으로 파고들기라도 하면 승부할 새도 없이 점수를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야구 전문가들은 경기 전반을 아우르는 눈을 가진 포수 출신 감독들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점치는 것이다. 우리나라 포수의 레전드로 불리는 박경완 현 SK와이브스 2군 감독은 현역 시절 '타자들이 노리는 공은 절대 안 주는 포수'로 유명했다. 내 앞에 서 있는 타자가 어떤 공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까? 그만큼 나를 알고, 투수를 알고, 타자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선수 육성, 특히 '포수 조련사'로 유명한 조범현 감독은 타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느냐는 물음에 "그래도 알아야 하는 것이 포수다"라고 말해 자신은 물론 상대팀 선수에 대해 한시도 집중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답이 없는 야구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존재

공을 주고받으며 한 조를 이루는 포수와 투수를 일컫는 '배터리'. 이 용어가 따로 쓰일 정도로 둘의

포수는 그라운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챙기는 어머니 역할을 맡는다.

궁합은 중요하다. 투수가 흥분하거나 잇따른 실점으로 자신감을 잃었을 때 포수가 마운드에 올라 그를 다독이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온다. 투수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도 포수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좋은 포수는 좋은 투수를 만들어낸다"는 말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큼 포수에게 경륜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모든 선수의 기여로 한 팀의 승리가 이루어지지만 특히 포수에게서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떼놓을 수 없다. 포수는 철저히 번업화된 야구의 포지션 중에서도 가장 전문성이 큰 포지션이다. 당장 투수와의 사인을 다 알아야 하고 흔히 말하는 '미트질'로 상대 타자도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하기에 다른 포지션의 선수가 대체하기도 힘들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쿠바와의 결승전에서 포수 진갑용이 기억나는가. 금메달을 눈앞에 둔 9회 1사 상황에서 심판의 볼 판정에 항의한 국가대표 주전 포수 강민호(현 롯데자이언츠)가 퇴장 판정을 받으면서 그라운드를 비우게 됐다. 안방을 지키고 있던 그의 퇴장은 다 잡은 금메달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왔고 그런 상태에서 대표팀의 만형 진갑용 선수(전 삼성라이온즈)가 그 부담감을 짊어지고 더그아웃을 나섰다. 당시 그는 허벅지 부상으로 포수의 자세를 소화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고통을 참아가며 경기에 집중했고, 마지막 아웃카운트 2개를 더 잡아냈다. 우리나라 역사상 딱 하나뿐인 올림픽 야구 금메달은 그렇게 얻어졌다. 답이 없는 야구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존재, 그라운드의 흐름을 읽으며 팀을 아우르는 포수. 어쩌면 어느 조직엔가에 속한 우리가 좇는, 이상적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⑩

경기를 움직이는 킹 메이커,

포수는 참모다

마운드 위의 투수가 전장을
이끄는 수장이라면, 포수는
전세의 흐름을 읽으며 리더를
옳은 길로 움직이는 참모와 같다.
팀의 승리는 포수의 역할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더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참모들.
역사 속 킹 메이커들의 탁월한
활약을 통해 포수의 자질을
읽는다.



환상의 공합으로 리더의 부족한 점을 채우다

정도전

뛰어난 지략으로 왕을 바꾸고 나아가
나라까지 바꾼 재상. 바로 정도전이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건국자라면
정도전은 조선의 판을 새롭게 짠
기획자라고 할 수 있다. 위화도 회군
때부터 이성계의 브레인으로 활약한
정도전은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조선 개국에 관여하며 나라의 법,
정치, 경제, 문화 등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나갔다.
무장(武將)이었던 이성계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성리학자인 정도전의 사상과
덕(德)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왕과 신하, 1인자와
2인자라는 상하 관계라기보다 때로는
정도전이 이성계를 이끄는 '2인자
리더십'을 보일 만큼 수평적이었다.
정도전은 조선의 시스템을 하나씩
채우면서 더불어 이성계의 부족한 점을
함께 메워나갔다.
1인자는 자신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큰 그림을 보고 앞으로 달려나간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정도전은 조선 개국에
반대하는 고려 충신들을 설득하거나
처단하고, 토지개혁을 추진해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 성공적으로 조선을
개국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준 설계사, 정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투수는 경기장 위의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해 오감을 열어놓지만, 공을 고르고
타자를 상대하느라 때로 놓치는 것이
생기곤 한다. 이럴 때 포수는 투수의
또 다른 눈이 되어준다. 포수의 해안이
있기에 투수는 등을 지고도 내야의
사각지대, 멀리 떨어진 외야까지
구석구석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삼국지〉에는 수많은 영웅호걸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최고의
브레인은 제갈공명이 아닐까? 지형,
기후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제갈공명이지만, 때로는 기발한
속임수로 위기를 아찔하게 모면하곤
했다. 대표적인 예가 사마중달과의 서성
전투다.
사마중달에게 패배해 퇴로를 차단당한
제갈공명은 서성으로 잠시 피해 있었다.
남은 군사는 단 5,000명. 15만 대군을
끌고 있는 사마중달에게는 턱없이
모자란 수였다. 이때 다급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사마중달이 병사들을
이끌고 서성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제갈공명은
군사를 정비하기는커녕 오히려 성문을
활짝 열었다. 전투할 때 쓰는 깃발과 북도
치우고 병사들에게 성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명령한 뒤, 갑옷 대신 도포를
입고 누각에 앉아 거문고를 연주했다. 이
장면을 본 사마중달은 제갈공명의 뜻밖의
모습에 멈춰 섰다. 제갈공명이 무방비
상태로 성문을 열어놓을 리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마중달은 필시 대단한
계략이 숨겨져 있어 자신을 유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당장 군대를 물렸다.
결국 제갈공명은 정공법이 아닌 속임수로
사마중달을 물리친 것이다.
뛰어난 지략으로 1인자의 러브콜을
술하게 받았던 제갈공명. 그는 위기에
강한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공식을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
예측한 대로 풀리는 경기는 없다.
위기의 순간은 늘 찾아온다. 승리는
이를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위기를 예측하라. 그리고
기발한 속임수를 발휘해 통쾌한 승리로
이끌어라.



위기에 빛을 발한
기발한 속임수

제갈공명

대통령에게도 단칼에 'No'를 말하는
까칠한 참모.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을
보좌한 루이 하우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태평성대를 이룬 리더는 칭찬보다
쓰디쓴 직언에 귀를 기울이며 충직한
신하를 가까이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이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곁에는 가장 냉정한 비판자,
루이 하우가 있었다.
루스벨트가 정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하우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문제점을 낱알이 밝혀냈다. 결국
루스벨트는 하우의 모든 비판을 방어한
후에야 OK 사인을 받을 수 있었다.
루스벨트가 정책의 방향에 집중하고
설득력 있는 연설과 대중적 매력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면 하우는
냉소적이며 비판적으로 문제에 접근했다.
하우는 '참모의 예스(Yes)는 먹기
좋은 독약'이라고 생각했다. 하우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가들 사이에서

성공을 앞당기는 참모의 쓴소리

루이 하우

'노맨(No Man)'으로 불리곤 했다.
하우는 냉철한 시각으로 루스벨트의
자만심을 무너뜨리고 태만함을 일깨우며
루스벨트의 사고의 지평을 넓힌
원동력이었다.
루이 하우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루스벨트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손꼽힌다. 그는 강력한
내각을 조직하고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 등을 추진하며 미국의

발전을 이끌었고, 그 결과 대통령을
4선이나 지내는 영광을 누렸다.
포수는 투수와 경기 중에 가장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포지션이다. 비록
말은 오가지 않아도 수(手) 사인으로,
눈빛으로 많은 정보를 교환한다. 투수의
계획을 명철하게 분석해서 아니다
싶으면 단칼에 'No'라고 잘라내는 것,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 역시
포수의 역할이다.



냉철한 시각으로 현실을
파고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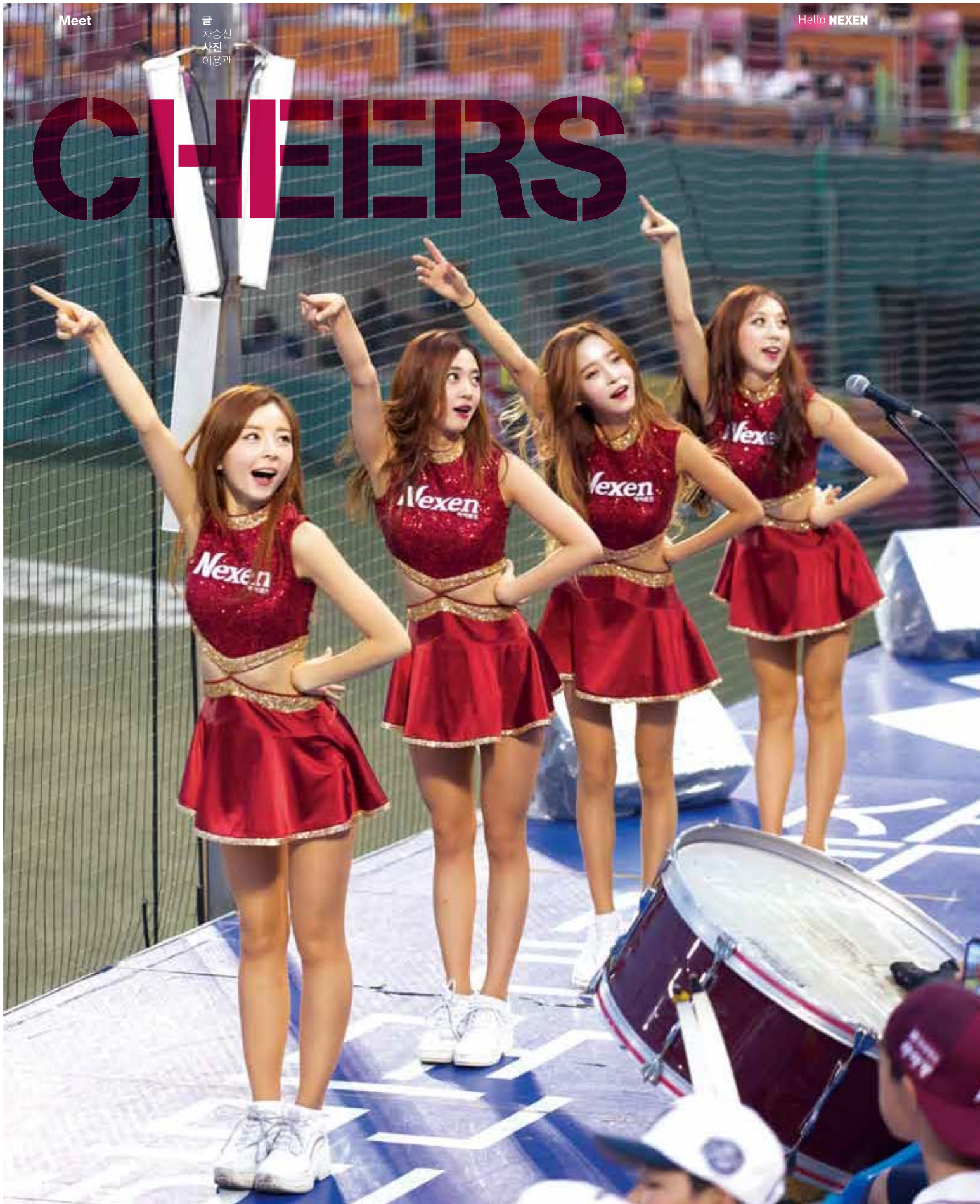
비스마르크

유럽 역사에서 명재상이자 부동의
2인자로 부각되는 인물로 비스마르크를
빼놓을 수 없다. 비스마르크는 지독한
현실주의 정책을 통해 독일제국의
통일을 이끌어냈다.
통일 전 독일은 신성로마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서유럽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크고 작은
연방 국가의 연합체에 지나지 않았다.
38개의 독립된 나라로 나뉘어 있을
뿐, 19세기에 이르러서도 통일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독일
내부에서는 활발하게 통일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 결과 독일 통일에
2개의 길이 열렸다.

하나는 '소독일주의'로 다른 민족은
제외하고 북독일의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순수한 독일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독일주의'로 오스트리아를 주체로
신성로마제국의 전 영토를 통합하는
것이였다. 비스마르크는 다른 나라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소독일주의 통일
노선을 확고히 정립하고 자유주의적
혁명적 통일이 아닌 군사력을 통한 무력
통일의 길을 선택했다. "현재의 문제는
연설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철과 피로만
해결된다"는 연설은 이상에 빠지기보다
현실을 냉철하게 파고든 비스마르크의
생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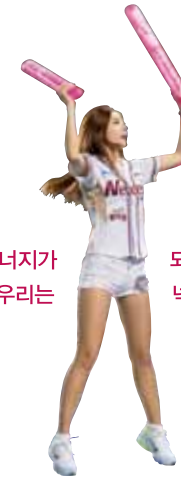
비스마르크의 판단 아래 독일군은
덴마크군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무너뜨렸다. 1871년 베르사유
궁에서 프로이센 왕이 독일 황제가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강력한 통일
독일을 탄생시켰다.
비스마르크가 외교, 혁명의 이상주의적인
방법만 고집했다면 지금의 독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승리를 위해서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 경기의 흐름을 정확히 짚고
분석했다면 지독하리만치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경기는 길다. 가능성과
희망에 '올인'해 모험을 감행하는 건 9회
말 2아웃에도 충분하다.¹⁰

CHEERS



넥센히어로즈 치어리더팀

우리의 에너지, 넥센의 시너지가 되다



자신들의 열정적인 에너지가 넥센히어로즈의 뜨거운 시너지가
팬들에게는 즐거움과 추억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는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선수들에게는 진심을 다한 응원을,
넥센히어로즈의 자랑스러운 치어리더다.

치어리더, 승리를 위한 그 힘찬 몸짓

“승~리를 위한 함성~ 오~오오오오~

승~리를 위한 함성~ 다~ 함께 부르자~”

넥센히어로즈의 홈경기가 있는 날, 목동야구장에 ‘승리를 위한 함성’이 울려 퍼진다. 넥센히어로즈의 치어리더들이 음악에 맞춰 야구장의 뭉치 시선을 장악하며 유쾌한 응원을 선보인다. 치어리더는 신나는 음악과 응원 동작으로 관중과 함께 소통하고, 그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존재다. 관중과 선수들 사이에서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넥센히어로즈 치어리더팀의 신나래 팀장입니다. 저를 포함해 이엄지, 임경미, 정인아 이렇게 총 네 명의 치어리더가 넥센히어로즈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리허설을 마치고 돌아온 치어리더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오늘은 SK와이브스와 경기가 있는 날,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인터뷰에 응했지만 특유의 밝은 미소는 여전하다.

“경기가 있는 날엔 네 시간 전에 야구장에 모여요. 관중이 입장하기 전에 리허설과 메이크업을 하고 경기 시작 한 시간 전엔 중앙문에 나가 개문 인사를 합니다. 경기장을 찾은 분들에게 제일 먼저 환영 인사를 하는 거죠.” 올해부터 넥센히어로즈 치어리더팀에 합류한 신나래 팀장의 이야기다. 신나래 팀장은 중학교 때부터 치어리더의 꿈을 키웠다. 이후 한 스포츠 구단의 연습생을 거쳐 22세에 농구단의 치어리더로 정식 데뷔, 그리고 드디어 올해 넥센히어로즈의 치어리더 팀장이 되면서 오랫동안 품었던 꿈을 이뤘다. 넥센히어로즈에서 2014~2015 시즌을 뛰고 있는 임경미 치어리더는 넥센히어로즈의 승리를 위해 뛰는 게 큰 에너지를 준다고 하며 넥센히어로즈 치어리더인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응원단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프로로 진입했어요. 농구와 축구 등 여러 스포츠 경기에서 치어리딩을 했지만 넥센히어로즈는 좀 특별해요. 의상 디자인까지 따로 있을 정도로 구단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답니다.”



선수-관중-치어리더, 우리는 또 하나의 팀이다

치어리더는 하나의 팀이다. 네 사람이 한마음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저희는 신기할 정도로 서로 취향이나 유머 코드가 잘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썰렁하다는 이야기도 우리끼리는 무척 신나거든요. 전 올해 처음 치어리더로 데뷔했어요. 치어리딩의 특성상 몸의 움직임이 크고 많아 힘에 부치기도 하고 동작을 익히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팀원들이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죠.”

이젠 개인 팬클럽까지 생겼을 만큼 멋진 치어리더로 성장한 정인아 치어리더. 그녀에게는 관중들과 함께한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 지난 6월 6일, 치어리더가 아닌 팬으로서 이엄지 치어리더와 함께 목동야구장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현충일에 열리는 경기는 공식적으로 치어리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은 넥센히어로즈의 팬으로서 경기를 보러 왔었죠. 사복을 입었는데도 저와 엄지를 알아보는 관중이 꽤 많았고 평소 응원하느라 수고한다며 음료수도 주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목동야구장의 통감자를 먹으며 목청껏 응원했지만 경기는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야구는 9회 말 2아웃부터라더니, 정말 9회 말 2아웃에서 김민성 선수가 투런 홈런을 치더라고요! 정말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4회 초까지 0 대 8로 끌려가며 누가 봐도 패색이 짙던 경기를 9 대 8로 뒤엎는 대역전극을 연출한 넥센히어로즈. 마치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했을 때처럼 옆 사람과 끌어안고 환호하던 그 순간은 절대 잊을 수 없단다.

“저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이 있어요, 2013년

두산베어스와의 준플레이오프 5차전 경기죠. 두산베어스에 내내 리드 당하던 상황에서 9회에 박병호 선수의 스리런 홈런으로 동점이 됐어요. 아쉽게도 경기에선 패했지만 선수도, 치어리더도, 관중도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모두가 하나의 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엄지 치어리더는 ‘선수-관중-치어리더는 하나의 팀’이라고 강조한다.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아낌없이 응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넥센히어로즈’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경기가 없는 날 치어리더의 일과가 궁금해졌다. 경기가 없는 날엔 뭘 하며 살까? “하하, 경기가 없다고 치어리더도 쉬는 건 아니에요. 오후 1시에 연습실에 모여 7시까지 응원 연습을 합니다. 야구의 재미 중 하나가 바로 ‘응원전’을 보는 거잖아요. 팬들에게 저희만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3연전에 1곡씩 새로운 안무를 짚다는 신나래 팀장. 단상 위에서 관중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선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인지 넥센히어로즈 치어리더팀은 다른 팀과는 구별되는 차별화된 매력을 갖고 있다. 대개 응원 음악으로 가요나 걸그룹의 노래를 사용하는데, 넥센히어로즈는 팝송도 종종 채택한다. 또



*치어리더는 하나의 팀이다.
네 사람이 한마음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손수건이나 의자 등 소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무를 구성한다고.

“올해는 우리 네 사람이 함께 활동하는 첫 시즌이라 서로 더 배려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안전이 있으면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죠. 예를 들어 인아는 올해 치어리더로 데뷔했지만 의상과 메이크업 분야에 남다른 눈썰미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선 인아의 의견을 경청하는 식이에요.”

끊임없는 소통과 배려로 함께하는 넥센히어로즈 치어리더팀. 이처럼 돈독한 팀워크가 바탕이 되었기에 그토록 아름답고 파워풀한 응원이 가능한 게 아닐까. 스포츠 경기란 인생과도 같아서 잘될 때가 있으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넥센히어로즈 치어리더들은 늘 진심을 다해 응원한다. 그들은 오늘도 뜨거운 열정과 힘찬 함성으로 관중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 마음의 홈런을 날린다.④

서울사무소 10인의 사우가
문래청소년수련관 장애청소년들의 일일
멘토가 되었다. 연신 쏟아내는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느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아이들의
뒤를 쫓느라 지칠 법도 한데,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사우들은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문래청소년수련관 ‘불런투어’

장애 청소년들과의 시장 투어, 시장에 가면~?



장애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20명으로 학생들의 거주지는
영등포구만이 아닌 다른 구에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불런투어는 2014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문래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준다. 매주 넷째 주 수요일
장애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물건 구매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달마다 다른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의 미션은 다양했다. 과자 사기, 음료
주문하기, 친구 선물 사기, 빨강·노랑
파프리카 한 개씩 사기, 부모님 선물 사기, 컵
사기 등. 시간과 금액의 한계로 정해진 장소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앞으로는 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하철 타기, 은행에 가서 입금하기, 우체국에서 편지
보내기 등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적응
훈련 또한 이뤄질 예정이다.

평소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채널운영팀 최현진 사우는
아이들을 만나기 전부터 어떤 아이가 ‘짜지’가 될지
궁금했었다. 다른 사우들 역시 마찬가지. 아이들을
만나러 온 사우들의 얼굴은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상기된 상태다. 사우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주의 사항을 전해 듣기 위해 문래청소년수련관 4층
강당으로 이동했다.

두근두근~ 오늘의 ‘짜지’는 누구일까?

평소 1사1촌 마을결연으로 농번기 일손 돕기, 마을
어르신 및 아이들 초청 야구 관람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사무소 10인의 사우들, 이번
〈헬로우넥센〉 봉사활동을 서울에서 진행한다는 고만할
것도 없이 발벗고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활동으로, 아이들과
일대일로 짝을 지어 대형마트에서 아이들의 물건
구매를 도와주게 된다.

이 불런투어는 문래청소년수련관 장애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1년 단위로



오늘의 미션! 5천 원으로 반찬거리를 구입하라

“아이들이 했던 말을 반복한다거나 반말을 할지라도 이해해주세요. 되도록 아이 스스로가 물건을 고르고 계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물건을 선택한다면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아이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권해주세요.”

문래청소년수련관 장애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은이 PM은 사우들에게 멘토링 시 주의할 점을 설명한다. 참가 아이들은 초등학교 4·5·6학년으로 자폐·지적·뇌병변·다운증후군을 앓는 발달장애 청소년이다. 장애 정도는 발달장애 1급부터 중증장애, 경계성 지능 청소년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각각의 아이들의 장애와 그 경중에 대한 이해는 필수. 교육은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되었고, 이를 경청하는 사우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작은 도움이지만 오늘의 시간이 아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터.

오늘의 미션은 5천 원으로 저녁 반찬거리를 구입하는 것.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 식구들이 자주 먹는 반찬이 무엇인지를 유도해 물어봐주세요. 단순히 구매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주시고요. 사고 싶은 것을 참아내는 인내심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은이 PM의 설명이 끝나자 20명의 아이들이 왁자지껄 문래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오늘 장 볼 물건을 담을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아이들은 오늘의 멘토가 누구일지 무척 궁금해하는 표정이다. 일대일 매치가 이뤄지자, 아이들은 사우들의 손을 꼭 잡고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다. 아이들은 사우들이 마음에 꼭 드는 모양이다. 자~~, 이제, 마트로 출발~.

시간을 나누고 행복은 곱해가는 순간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마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야 한다. 노란 자원봉사 조끼를 입은 사우들과 20명의 아이들이 장관을 이룬다. 이 길이 익숙한 아이들은 사우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설 새 없이 재잘거린다. 이미 무엇을 구입할 것인지 정해둔 아이들의 입에서는 ‘달걀’, ‘오이’, ‘햄’ 등 다양한 식재료의 이름이 나온다. 마트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사우들의 손을 이끌고 자신이 구입해야 할 품목이 있는 진열대를 찾는다.

“무경이는 자폐 증세가 심하다고 들어서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 물건 저 물건을 만져보고 글씨도 소리 내어 읽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살까 살짝 고민하는가 싶더니 팩 포장인 된장찌개를 장바구니에 담더라고요. 호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더니 계산도 척척 잘하고요, 영수증까지 챙기던데요. 도움을 주러 왔는데, 무엇을 도와야 할지 모르겠는 거 있죠. 하하.”

총무2팀 김민영 사우는 그런 무경이가 기특하기만 하단다. 총무2팀 김희진 대리의 짝지인 미정이는 무경이와 달리 저녁 반찬거리로 무엇을 살까 한참 동안 고민했다고. 야채를 좋아한다는 말에 김희진 대리가 콩나물, 두부, 호박, 생수를 구입할 것을 권해줬단다. 미정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김희진 대리가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다음 달에도 꼭 만나고 싶단다. 반면 마케팅팀 구광태 사우의 짝지인 성우는 반찬거리에는 도통 관심이 없다.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장난감 구경 삼매경이다.

“반찬거리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내 양송이버섯을 고르더라고요. 저녁 양송이버섯 반찬을 먹을 성우를 떠올리니 마음 뿌듯합니다.”

볼런투어 활동을 통해 사우들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장애는 아주 조금만 불편함을 동반할 뿐, 주변의 작은 도움만으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내내 마음이 여유롭고 행복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볼런투어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단다. 세 시간 안팎, 나눈 시간보다 많은 것을 얻어가는 하루였을 오늘. 사우들 마음 속에 아이들의 미소가 깊게 남길 바란다.👉

※정정합니다.
애광원 봉사 활동을 다룬 <헬로우넥센> 여름호 '나눔 그리고 공유'에서 '요양보호사 광귀순 선생님'의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광귀순 선생님'으로 정정합니다.



이만큼
샀어요

안양지점 사우들의 패러글라이딩 체험

이토록 아름다운

비행

올려다보고만 있기에는
아까운 공활한 가을 하늘에
안양지점 5인방이 떴다.
오늘 하루 날개를 빌려
바람에 몸을 맡긴 그들을
만나기 위해 양평 유명산
정상에 올랐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법

서울에서 한 시간가량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경기도 양평군 유명산 하늘에는 아침 일찍부터 색색의 패러글라이더가 떠 있었다. 오늘 사우들이 체험할 코스는 오프로드를 즐기며 활공장에 올라 강사 지도하에 2인 1조로 뛰어내리는 매우 안전한 비행. 초보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코스지만 처음 경험하는 사우들의 얼굴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다는 소식에 휴가까지 반납하고 한달음에 달려온 이지선 사우는 아직 활공장에 올라가기 전인데도 떨린다며 취재진의 옷자락을 꼭 잡았다.

“강사님이 잘해주시겠죠? 저 화장실도 몇 번이나 다녀왔어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무섭기도 하고, 아~~! 어떡하지?”

어느덧 정상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강사의 외침이 들리고, 멋진 오프로드 카를 기대했던 사우들이 갑자기 웃음을 터트렸다.

“와, 나는 이 차가 이렇게 기동력이 좋은지

몰랐네.”

“이런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그렇지?”

계곡을 넘고 산비탈을 달릴 차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친숙한 1톤 트럭이었던 것. 그러나 실망한 마음도 잠시, 산 중턱쯤 오르자 발아래 펼쳐진 풍광에 모두 넋을 잃었다.

“우와~ 정말 예쁘다. 단풍 들 때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시 올까 봐.”

“어! 저기 다람쥐! 방금 봤어?”

“어디? 어, 진짜다!”

“자, 자, 이 앞에 소나무 두 그루 보이시죠? 영화 <왕의 남자> 촬영지예요. 저기 저 언덕은 영화 <관상>에서 송강호의 집이 있던 곳이지요. 여기 들판에서는 곧 개봉할 전쟁 영화의 전투 장면을 찍었고요.”

중간중간 더해지는 운전 담당 강사의 친절한 가이드로 30분여의 오프로드 시간은 금세 지나갔고,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했다. 맑은 하늘과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이 패러글라이딩 하기 딱 좋은 날씨다. 이제 곧 바다처럼 펼쳐진 광경으로 뒀 수 있다는 생각에 사우들도 두근두근 떨리는 눈치. 장비를 꼼꼼히 점검해주는 강사로부터 간단한 설명과 주의 사항을 들으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홍일점인 이지선 사우의 얼굴에 유독 먹구름이 잔뜩 껴다. 살짝 옆으로 가보니 오늘 파트너가 될 강사 옆에서 불안한 마음을 담아 속사포 램을 쏟아내는 중이다.

“강사님, 선생님, 아이고~ 저 안전한 거죠? 이거 꼭 묶인 거 맞는지 다시 한 번 당겨봐주세요. 저랑 연결은 잘됐나요? 강사님, 이게 바로 강사님과 나의 연결고리!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하하하, 괜찮다니까요! 안심하세요. 저랑 같이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발이 허공으로 뜨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때 땅에서 발을 살짝 떼면 날아오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옆으로 김의상 대리가 발을 구르며 경사진 언덕 아래로 달리기 시작했다. 바닥에 누워 있던 날개가 저항을 받으며 서서히 부풀었다. 순간 다리가 붕 뜨더니 훅 날아오른다. 뒤이어 최순필 대리까지 차례로 날았다. 드디어 이지선 사우의 차례. 겁을 내던 것도 잠시, 강사의 신호에 힘차게 달린다.

“으악~ 난다, 난다! 으악~ 강사님, 선생님, 강사나~~~임! 으악~ 으악~”

빨간 날개와 함께 이지선 사우의 비명이 아득히 멀어져간다. 바람 때를 기다리던 이명식 지점장, 김영기 사우드 대열에 합류하고, 5개의 패러글라이더가 산과 산 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지역 내 기존 유통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 및 매출, 채권 관리, 신규 거래선 개발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또한 영업 지점의 특성상 매달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밤낮으로 뛰다 보니 일할 때는 팀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좀처럼 쉽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명식 지점장은 2개월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회식 자리를 만들어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안양지점 최고 장점은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급에 관계없이 언제든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죠. 덕분에 바쁜 와중에도 가족처럼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꿈 같던 비행이 끝나고, 사우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름다운 오늘의 추억을 발판 삼아 안양지점이 넥센타이어 최고 지점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응원한다.⑩



직급에
관계없이
언제든 의견을
나누고 소통해
가족처럼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손을 잡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별거 아니네! 무서웠는데, 막상 하늘에 뜨고 나니가 구름에 앉은 것처럼 편하더라고요.”

“그치? 난 한 번 더하고 싶어. 마지막에 공중에서 묘기 부리듯 한 바퀴 돌던데 재밌더라. 너도 했지, 그게!”

“네? 저도 했나? 모르겠어요. 헤헤, 사실 지금도 정신이 별로 없어서.”

착륙장에 내려오자마자 너도나도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우들. 지점장부터 막내 사우까지 연령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꼭 또래 친구들이 모인 모습 같다. 볼링, 당구 등 스포츠로 팀워크를 다져온 안양지점 식구들이지만 야외로 나와 하는 활동은 처음이라 더 신이 나는 모양이다.

안산, 안양, 광명, 시흥, 군포, 과천, 의왕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안양지점은 관할

재료파트 신병철 · 정명진 사우의 ‘우리 친구아이가!’

따가닥따가닥,

워어~

청명한 하늘 아래 푸르고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김해의 BK승마랜드. 윤기 흐르는 구릿빛 피부 위로 탄탄하게 드러난 근육, 막 훈련을 마친 말의 핏줄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선명하다. 이 말 위에 올라탈 용기 있는 자, 재료파트 신병철 · 정명진 조장이 당당히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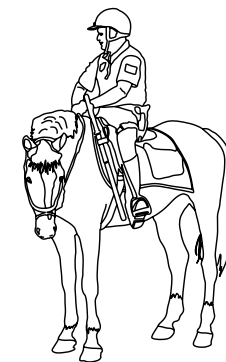
말과 교감 나누기, 생각보다 만만찮네~

“자, 얼른 이리 와서 맞는 헬멧 써보세요.
신병철 조장님은 사이즈 60!”

승마랜드 사무실에 두 사우가 들어서자마자 박성순 대표의 코치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안전 조끼, 승마 바지에 멋들어진 부츠까지 장착하고는 기승 자세부터 기승 시 주의할 점, 기승자와 말 사이 의사소통 수단인 음성 부조를 배운다.

“말의 허리를 허벅지로 부드럽게 끌어안는 느낌으로 감싸세요. 뒤통치에 힘을 줘서 살짝 눌러주고, 하체에 힘을 줘야 안정적이고 덜 위험합니다.”

경마가 속도 게임이라면 승마는 말과 춤을 추는 예술이다. 그렇기에 승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의 소통. 다문 입술 중 한쪽을 열고 공기를 입안으로 흡입하면서 “쫄, 쫄” 소리를 내는 것은 ‘GO~’의 뜻으로 이 소리를 들은



말은 서서히 앞으로 나아간다.

걸거나 달리다 멈추라는 뜻을 전달하고 싶으면 부드럽게 “워어~” 하면 된다. 이 부조를 온화하고 친근하게 한다면 말도 자기 위에 올라탄 기승자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을 받는단다. 그렇게 교감이 잘되었을 때 비로소 승마를 즐길 수 있다고.

기본 교육을 마치고 원형 마장으로 나섰다.

오늘 두 사우와 함께 호흡을 맞출 빅샷과 동방이도 따라 나온다.

애들아, 우리 사우들 잘 부탁해~

말을 처음 타는 왕초보 두 사우는 천천히 걷는 평보 연습부터 시작한다. “이영채!” 올라탄 후 교관의 안내에 따라 큰 원을 그리며 걷는데, “쫄, 쫄~” 부조가 어색한지 신 조장의 빅샷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목과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고서야 차차 발걸음을 떼는 빅샷.

생각보다 까다롭네, 까다로워.

“TV로 볼 때는 쉬워 보였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제가 아직 낯선가 봐요. 하하.”

천천히 걸었다, 멈췄다, 속도를 내보기도 하고,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말을 달래며 걷기를 몇 분이 지났을까. 업무에 지쳤을

두 사우를 위해 박성순 대표가 마상체조

수업을 제안했다. 어느새 말의 움직임에

익숙해진 사우들은 고삐를 놓고도 덜 긴장한



승마는 말과 춤을 추는 예술이다.

말과 교감이 잘되어야

비로소 승마를 즐길 수 있다.

모습이다. 두 다리로 동방이의 허리를 짊 감싸고, 두 손을 하늘 높이 뻗어 허리를 뒤틀며 뭉친 근육을 푸는 정명진 조장은 유독 편안하게 말과의 교감을 즐기는 듯했다.

동료를 넘어선 오랜 친구, 앞으로도 영원히

“생각보다 어렵네요. 처음이라 몸이 경직돼서 그런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며 말에서 내린 사우들에게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특히 야외 방목장에서 자꾸 고개를 숙이던 빅샷 때문에 잔뜩 긴장했던 신 조장의 표정이 한결 가벼워졌다.

“고삐를 세게 당기면 말이 아프다고 하니 신경 쓰이더라고요. 살살 당기면서 안 떨어지게 조심하느라 힘들었네요. 은근히 운동 많이 되겠는데요. 몇 시간 탄 것도 아닌데 몸이... 아휴~”

신병철 조장과 정명진 조장은 각각 94년, 98년 입사로 선후배 사이임에도 동갑내기 친구로 20년 가까이 지내왔다. 4년 차이면 한참 선임이지만 마음이 잘 맞아 서로에게 의지하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어 회사 생활이 더 즐거웠다면 정명진 조장이 허허 웃는다.

“젊었을 땐 여러 명이 뭉쳐 친하게 지냈어요. 퇴근하면 술도 한잔씩 하고, 친구들과끼리 근무하는 느낌이라 일도 잘됐던 것 같아요. 도울 부분이 있으면 서로 나서서 돕고,

지금까지 함께해온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는
친구가 되기를.

불편한 점이 생기면 바로 얘기해서 개선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 그 멤버들과 아직도 종종 모여요. 이젠 다 가정을 이루었으니 가족 모임이 되었네요.”

스물두세 살에 우르르 몰려다니던 청년들이 하나둘 가정을 이루면 관계가 소원해질 법도 하지만 이들에게엔 오히려 더 큰 가족이 생겼다. 휴가 때면 멤버들의 온 가족이 함께 놀러 가곤 하는데 아내, 아이들까지 모두 모이면 족히 서른 명은 된다고. 남편들은 술 한잔 기울이고, 아내들은 수다 삼매경, 아이들은 또래끼리 뛰어노니 이처럼 좋은 가족이 또 없단다.

젊디젊은 사원이었던 그들이 이젠 파트를 이끌어가는 조장, 파트장으로 넥센타이어의 중심에 서 있다. 말은 업무가 중요해진 만큼 힘들 때도 있지만 서로에게 배우고, 세월이 지나면서 각자가 깨달은 바를 나누며 이젠 넥센타이어에 없어서는 안 될 넥센인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인생의 중간 즈음, 매일같이 얼굴 보고 웃으며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 이보다 더 든든한 동반자가 또 있을까.

지금까지 함께해온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는 친구가 되기를, 지금의 훈훈한 미소를 언제까지나 잊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공정연구팀 최상현 사우 가족

우리 가족 삼둥이 슈퍼히어로!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람!
공정연구팀 최상현 사우
가족에게 세 명의 복덩이가
찾아왔다. 세쌍둥이를
낳았느냐고? 아니다.
최상현 사우의 아내와
누나, 막내 여동생이 한날
거의 동시에 예쁜 아이를
출산한 것. 기쁨이 세 배로
찾아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들의 행복한 시간을 살짝
들어다보았다.

사랑이, 만복이, 라온이의 탄생

“아이 좋아! 아이 좋아요~ 웃는 것 봐. 아구 이빠~”

최상현 사우 누나 최승희 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작은 아기들이 쭈르르 누워

있다. 동글동글 손 싸개를 하고 팔다리를 바동바동. 다정스레 이름을 부르자 눈 맞추며 방긋 웃는 모습에 ‘오구오구!’ 소리가 절로 나온다.

“참 신기한 일이죠. 산부인과 선생님도 의사 생활 30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상현 사우의 아내 이유다 씨와 누나 최승희 씨, 동생 최선아 씨는 지난 6월 18일에 각각 대구, 부산, 진주에서 아기를 낳았다. 오전 10시에 선아 씨가 사랑이를, 오후 12시에 승희 씨가 만복이를, 오후 4시에 유다 씨가 라온이를 낳은 것이다. 임신 계획을 공유한 것도, 예정일이 비슷한 것도 아니었기에 이런 우연이 더욱 신기하기만 하다.

“저희는 예정일에 맞춰 진통이 와 병원에 가 있었어요. 동생의 예정일은 2~3일 전, 누나 예정일은 한 달 후였는데 동생은 진통을 오래 하고 누나는 갑자기 양수가 터지더니 애들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다 어리둥절했죠. 신기하다는 말밖에는 뭐라 표현하기 힘드네요, 하하.”

통영에 사는 세 아기의 할머니는 동시에 태어난 손주 중 누구를 보러 갈까 고민하던 끝에 결국은 공평하게 아무에게도 가지 않았단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할머니 댁에 처음 모인 날, 세 손주를 안아 예뻐해주는 시간도 똑같이 안배하더라고.

“장난스레 세 명 중에 누구에게 제일 눈길이 가느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끝까지 셋 다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손자 효준이 이후로 6년 만에 손주를 안으셔서 더 좋으신가 봐요.”



공정연구팀 최상현 사우와 아내 이유다 씨,
그리고 귀여운 딸 율리

사이좋은 가족, 즐거운 우리 집!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삼 남매의 우애가 특히나 돈독해 보인다. 특별히 더 친한 것도 없으며 웃지만 뭘, 친구들 모인 자리인 양 큰 웃음 뽀뽀 터지고, 오가는 말속에는 다정함이 가득 배어 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려서부터 서로 의지하며 지낸 시간이 쌓여 이 가족만의 단단한 울타리를 만든 것이리라. 최 사우의 매형, 매제도 이들이 티격태격하는 걸 본 적이 없으며 시간 날 때마다 갖는 가족 모임을 즐겨워했다. 특히 최 사우의 아내 유다 씨는 이 가족과 인연이 깊단다. 승희 씨, 선아 씨와 대학 동문으로 결혼 전부터 친한 언니 동생으로 지내왔다고, 가끔 집에 놀러 오던 유다 씨와 최 사우가 본격적으로 교제한 건 알고 지낸 지 7년이나 지나서였다.

“누나가 베트남에서 해외 근무할 때 놀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내도 휴가라 거기에 왔더라고요. 3박 4일 정도 같이 여행하고 나니 정이 들었는지 또 만나고 싶어서…”

쑥스러운 듯 말끝을 흐리는 동생을 보며 웃음보 터진 승희 씨가 말을 잇는다.

“올케가 동생보다 좀 늦게 귀국했는데 동생이 공항으로 마중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오랫동안 보면서도 서로 관심 없다가 갑자기 사귀다니 놀랐고, 결혼하겠다니 더 놀랐죠. 우리가 장난삼아 얘기해요. 상현이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호호~”

최 사우 부부가 다뤘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선아 씨가 바로 오빠한테 전화를 ‘쏜’단다. 막내지만 6년 차 결혼 선배인 선아 씨 전화 한 통이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된다고, 유다 씨는 시댁에 든든한 지원군을 둘이나 두고 있는 셈이다.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자라다오

취재진이 찾아간 그날은 아이들이 태어난 지 58일 되던 날이었다. 아이들은 벌써 태명만큼이나 예쁜 이름을 얻었다.

아이의 방긋 웃음
한 방에 엄마,
아빠는 연신
싱글벙글이다.
예쁜 아기들아,
건강하게 자라렴!



“사랑이 이름은 이다경, 만복이는 김규민, 라온이는 최율리예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친구를 둘씩이나 두고 태어났으니 우리 애들은 참 복 받았네요~”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에도 배고파 칭얼대는 아이 데리고 들어가 수유하라, 끄꿍대는 아이 눈 맞추고 달래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 우는 아기 안고 같이 울 정도로 고단하다는 시기지만 ‘이제 거의 60일’이 지난지라 한숨 놓는단다. 더구나 승희 씨, 최 사우 부부는 처음 하는 육아라 더 힘들 텐데도 아이의 방긋 웃음 한 방에 연신 싱글벙글이다.

“언니, 오빠와 근처에 살면서 이것저것 챙겨주면 좋을 텐데, 모두 다른 지역에 사니까 좀 아쉽긴 해요. 저는 큰애 효준이가 동생 예뻐하면서 잘 도와주니 한결 편하죠. 그래도 메신저로 매일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이럴 때 보면 역시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다니까요.”

사이좋은 삼 남매를 중심으로 끈끈하게 뭉친 여섯 명의 가족 그리고 든든한 여섯 살 장남 효준이와 귀여운 삼둥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르고 행복한 이 가족의 앞날에 늘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애들아, 건강하게 자라렴~!🍀





좋은 아빠 프로젝트

글

이창욱(한국마인드케어연구소 대표)

Hello NEXEN

꿈틀대는 신체만큼 마음도
꿈틀대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는
참 힘들다. 또래끼리는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왜 부모와의
소통은 그렇게 어려울까?
다음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한다면
사춘기 아이들과도 어렵지 않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사춘기 자녀와 특 터놓고 대화하는 비법

마주하는 실제 눈높이를 낮춰라

아이와 대화를 시도할 때는 눈높이부터 신경쓰자. 특히 사춘기 아이를 대할 때는 눈높이를 아이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사람의 눈높이는 권위와 비례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을 올려다보면 심리적으로 말문이 막히기도 한다. 특히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은 유독 눈높이에 민감하다. 이 점을 역이용해서 아예 자녀보다 눈높이를 낮춰버리면 아이의 심리적 장벽이 한결 낮아진다. 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 옆 바닥에 주저앉아 대화를 시도해보자. 아이는 비교적 수월하게 말을 꺼낼 것이다. 자녀와의 대화를 위해 무릎 꿇고 앉는다 해도 그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대하는 자세

가족 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서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건 대화를 안 하느니만 못하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대화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과 비슷하다. 이야기하는 동안 스마트폰이나 TV는 잠시 멀리 두자. 반드시 눈을 맞추진 않더라도 그저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소통이 된다. 어차피 몇 시간 동안 대화하는 것도 아니니 그리 힘들 것도 없다. TV를 끄면 분위기가 엄숙해져 오히려 말하기 어렵다면 카페나 레스토랑처럼 배경음악을 사용해보자. 자녀에게 음악 선택권을 줘서 아이의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악을 듣는다면 금상첨화다. 대화하는 동안 아이가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할 수도 있고, 음악적 공감도 가능하니 말이다.

‘아빠 미소’를 장착하라

사춘기 아이들은 어른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면 ‘화가 났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무표정한 얼굴로 대화를 시도하면 아이들은 겁먹고 대화를 거부하려 한다. 그렇다고 가식적으로 하얀 치아를 모두 드러내며 웃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더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대화를 시도하기 전에 자녀와의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힘들 법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자. 그리고는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 화내지 않고 다 들어줄게.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라는 마음가짐만 가진다면 당장 표정부터 달라진다. 흔히 말하는 ‘아빠 미소’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것이다. 단, 나쁜 상상에 너무 몰입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가볍게 할 것.

마음을 여는 매개체를 준비하라

집에 손님이 온다면 가장 먼저 다과를 대접한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차 한잔은 환영의 뜻과 더불어 반가움을 표현하는 좋은 매개체다. 작은 대접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손님, 고객과 대면을 위해 ‘자리’가 필요한 것처럼 자녀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적절한 공간과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치킨, 피자같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좋고, 아빠가 손수 만든 건강한 간식도 좋다.

끝까지 들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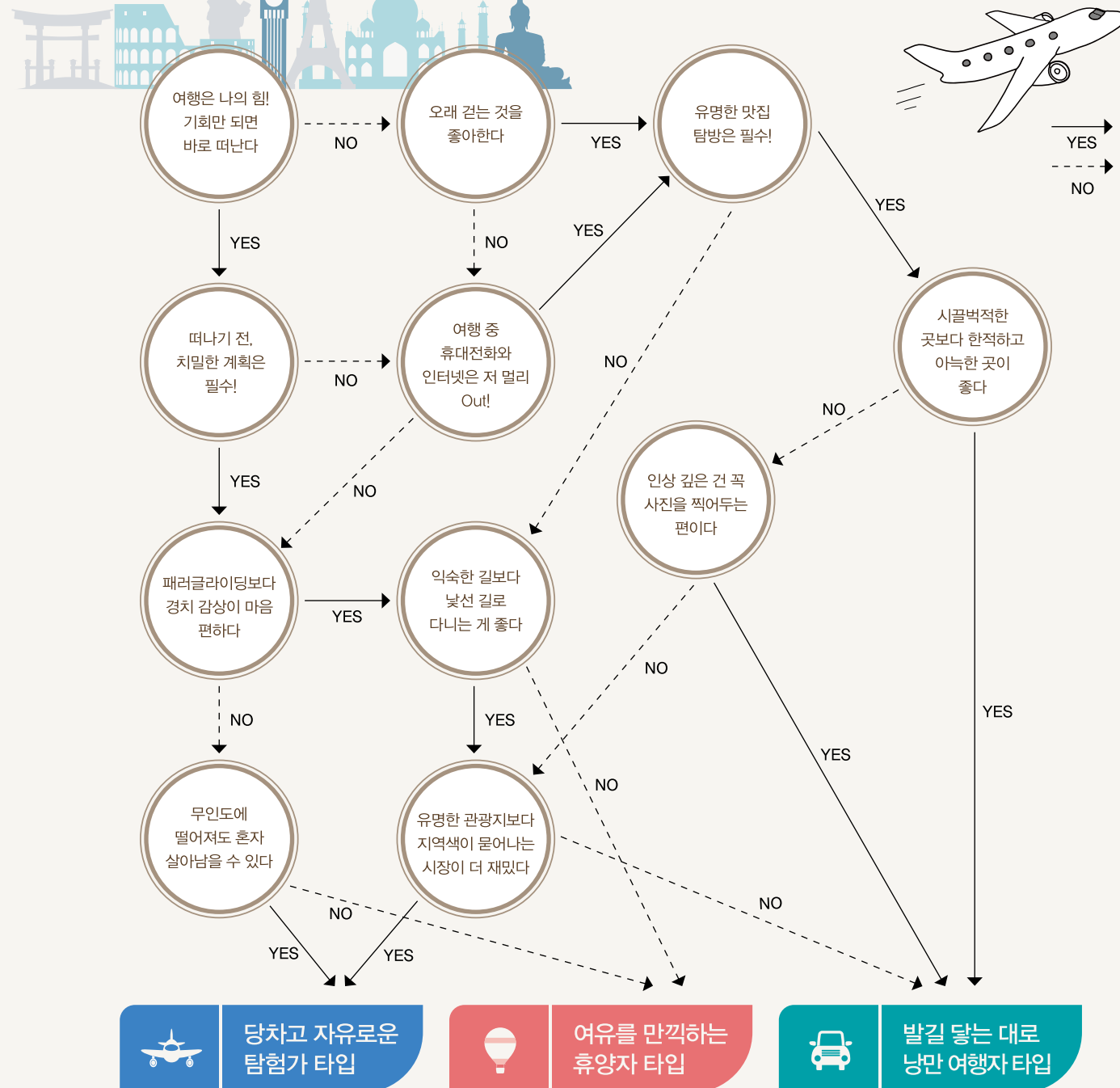
사춘기 아이와 성인이 말하는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감정의 표현이다. 성인은 원인을 이야기한 후 감정 상태를 덧붙이는 반면, 사춘기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 이유나 원인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 짜증 내!”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짜증 가득한 자녀의 표정이나 태도 때문에 점점 듣기 거북해져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말을 끊고 훈계 모드로 돌입하는데 이 상황이 반복되면서 둘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진다. 아이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정 표현 다음에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고 끝까지 들어보자. 막상 그 원인이나 이유가 싱거울 정도로 사소한 것인 경우가 태반일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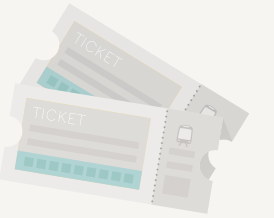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비교나 무시 또는 강압적인 말투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듣기 싫은 말’과 비슷하다. “내가 그거 해봐서 아는데…”,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러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은 절대 사용 금물. 반면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다. “괜찮아”, “수고했어”라는 말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도 집에서 아빠가 ‘괜찮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아이들은 든든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다. 특히 아이들에게 힘과 권위의 상징인 아빠의 말이라 엄마가 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무게감 있게 느낀다. ‘괜찮아’, ‘수고했어’ 이 두 마디를 입버릇처럼 달고 살자. 그러면 어느 날 서러움에 북받쳐 펄펄 눈물을 흘리며 아빠에게 기대는 사춘기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화는 강제로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⑩

아빠가 ‘괜찮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아이들은 든든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다.

넥센인의 선택! 당신의 여행 타입은?



선선해진 날씨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갑자기 여행을 떠날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디로 떠나야 할지 혼란스러울 터. 간단한 테스트로 나의 여행 타입과 그에 맞는 여행지를 알아보자. 넥센타이어 사주들은 어떤 타입의 여행가일까? (조사 대상: 넥센타이어 사주 197명)



www.tourbaksa.com

여행박사가 제안하는 타입별 추천 여행지



당차고 자유로운 탐험가 타입 39%

페루 마추픽추

태양의 도시, 공중 도시라 불리며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고대 도시, 마추픽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 더욱 신비로운 그곳. 찾아가는 방법조차도 쉽지 않다. 험난하기로 유명한 안데스 산맥의 비포장도로와 4,000m 고산에 자리한 만년설을 헤치고 들어가야만 당도할 수 있는 마추픽추는 1년에 고작 몇 번만 여행객들에게 얼굴을 비친다. 모험과 신비함을 좇는 탐험가들이 꼭 도전해야 하는 필수 여행 코스.

경상북도 봉화

워낙 잘 알려지지 않아 외지인이 여행하기 어려운 코스를 가지고 있는 봉화. 태백산 인근의 다양한 산세에 둘러싸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이 많아 가는 길이 고생스럽기도 하지만 막상 여행하다 보면 시원한 계곡과 산들바람에 피로와 땀방울이 눈 녹듯 사라진다. 아직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산길과 때 묻지 않은 자연을 찾아 즐기고 싶은 탐험가들에게는 최고의 국내 여행지.

페루 마추픽추



경상북도 봉화



여유를 만끽하는 휴양자 타입 29%

하와이

태평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수 있는 섬. 와이키키 해변에서 해수욕과 수상스키, 서핑 등을 즐기고 하나우마 베이에서 동화 속에 나올 것만 같은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게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까지 즐길 수 있으니 휴양의 최고 여행지는 단연 하와이를 꼽을 만하다.

제주도

놀이, 먹고, 쉬고,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편안하게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보물 같은 섬이다. 정비가 잘된 해안도로를 달리며 따스한 햇볕과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만끽할 수 있음은 물론, 현지의 특색이 물씬 묻어나는 갯가지 먹거리도 풍성하다. 여유를 만끽하고 싶은 휴양자들에게는 최적의 장소!



하와이



제주도



발길 닿는 대로 떠나는 낭만 여행자 타입 31%

체코 프라하

고색이 짙은 건물들에서 풍기는 중세의 향기, 거리 곳곳마다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몰다우 강을 수놓은 13개의 다리와 당당한 위용을 드러내는 프라하 성까지! 걷는 거리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하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 낭만을 좇는 당신에게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여행지는 없다.

강원도 강릉

바다와 함께 커피에 빠질 수 있는 국내 낭만 여행의 1번지. 강릉 바다 어디에서든 아기자기하고 예쁜 카페를 찾을 수 있다. 푸르게 일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커피 한잔. 이보다 낭만적일 수 있을까. 커피 외에도 강릉만의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음은 물론, 소박하고 작은 어촌 마을의 정취도 느낄 수 있다. 워낙 예쁜 도시라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강릉. 어릴 적 추억을 찾는 여행객 혹은 낭만을 좇아 떠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㉞



그 어느 날 만난

내 인생 최고의 영화

누군가의 삶과 열정이 집약된 한 편의 영화. 가상의 이야기는 그 어떤 진실보다도 강렬한 진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어느 날 우리를 울리고 웃긴 영화들. 덕분에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인생은 아름다워

나치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간 귀도는 자신의 일생을 건 과제에 도전한다. 그것은 어린 아들 조슈아에게 독일군들에게 들리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는 기술을 가르치되, 현실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돕는 것. 그건 무책임한 낭만이 아니라 필요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귀도는 아들에게 유대인 수용소를 거대

아버지의 위대한 유머

앞에 둔 강제 노역의 나날이, 조슈아에게는 가상현실 속에서 상을 놓고 벌이는 게임의 시간이 독일 패전의 날까지 이어진다.

사우평 아이로 '하어금'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아빠는 좋은 아빠다. 각박한 세상이지만 귀도가 직면해야 했던 수용소의 처절함과 비교해본다면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시네마 천국

가정 형편이 어려운 토토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부자다. '시네마 천국' 극장의 영사 기사 알프레도와 세대를 초월한 우정을 나누고 있

기 때문. 알프레도는 처음에는 토토를 귀찮

게 여겼으나 토토의 영리함과 귀여움에 마음을 열고 영사기 조작법을 알려준다. 토토는 키스신, 누드신, 베드신 등 잘린 필름 조각에 호기심을 가지면서 그것들을 틈틈이 모으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청년이 된 토토는 고향을 떠나 영화감독의 꿈을 이룬다. 오랜 시간이 흘러 알프레도의 부음을 듣고 찾아온 고향에서 토토는 알프레도가 자신 앞으로 남긴 필름 뭉치를 받아 든다. 그것은 자신이 어린 시절 그토록 궁금해하던 검열된 필름 조각을 이어 붙인 것. 스크린을 바라보는 토토의 얼굴에는 환희의 미소와 슬픔의 눈물이 교차되어 흐른다.

사우평 어른은 아이의 천진함에 웃음 짓고, 아이는 어른의 배려에 감동한다. 사람은 누구나 아이였고 어른이 된다. 고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멘토이자 멘티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쇼생크 탈출

잘나가던 은행 간부였던 앤디는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쇼생크 감옥에 갇힌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감옥 생활에 순순히 적응해나간다. 하지만 앤디는 감옥에서 만난 '절친' 레드에게 "희망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라며 자유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다. 20년 동안

“희망은 좋은 거예요”

남모르게 손가락으로 땅굴을 파 내려가 결국 탈옥에 성공하는 앤디. 1990년대 중반, 영화의 포스터는 수많은 벽에 도배됐다. 청춘들의 방에, 세련된 카페 안에. 비가 흠뻑리는 하늘을 향해 온몸으로 포효하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아름답게 박제되어 있었다. 자유가 폭죽처럼 화사하게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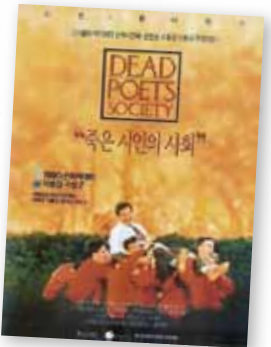
사우평 삶의 궁극은 '희망'이다. 그 희망이 존재하기에 오늘의 고단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더딜지라도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디딜 수 있는 것.

죽은 시인의 사회

미국의 명문 사립 웰튼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키팅은 학생들에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클럽을 소개한다. 이 모임에서 "말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 시가 아름다워서 읽고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시를 읽고 쓰는 것이다. 의학, 법학, 경제학 등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시와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이다"라며 시가 인생에서 왜 중요한지를 설파한다. 하지만 학생의 자살로 퇴직 통보를 받고, 마지막 수업에서 "끝까지 너의 걸음을 걸으라"라고 외친다. "오, 캡틴, 마이 캡틴"으로 응답하는 아이들. 영화는 당시 많은 학생에게 하나의 종교가 되었고 "현재를 즐겨라(Carpe Diem!)" 같은 대사들은 청춘들의 인생관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시와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

사우평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는 요즘, 아이들과 함께 봐도 여전히 낯지 않은 진실을 귀뜸해주는 현재형의 영화.



포레스트 검프

영화는 하얀 깃털이 바람에 날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바람의 방향대로 나부끼는 깃털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에, 머리를 굴리지 않았기에 연이은 행운을 거머쥔 사나이, 포레스트 검프. 아이큐 75, 한쪽 다리마저 불편한 검프에게 또래들의 따돌림은 일상이었다. 영화의 흥미로운 지점은 검프가 기적처럼 인생의 장애물을 통과해나가는 과정. 무지하게 '재수 좋은' 이 사내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얼굴에 웃음

이 가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해타산보다는 진심으로 세상을 마주해야 한다는 진리를 펴뜩 깨닫게

된다. 검프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남긴 "신께서 네게 주신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 살 거라.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란

다. 열기 전까지는 무엇을 잡을지 알 수가 없어"라는 유언 또한 삶을 성찰하게 한다.⑩

사우평 인생이라는 초콜릿 상자에 마음을 여는 순간, 거친 운명은 온순해지고 답답하던 가슴은 자유로워진다. 이는 <포레스트 검프>가 전해주는 교훈.



SUMMER



경영진단팀 박경원 과장

올여름 친구 부부와 함께 양산 워터파크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시원한 분수에서 무더운 여름을 즐기는 아들네미입니다~

제품평가팀 박성훈 조장

수영선수인 딸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러시아 카잔으로 출국할 때입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뜨거웠던 여름 이야기죠 ^^ 세계로 뻗어 나갈 우리 박한별 선수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창)공무팀 진명수

공장 휴무 작업 전. 준비하느라 다들 힘들었지만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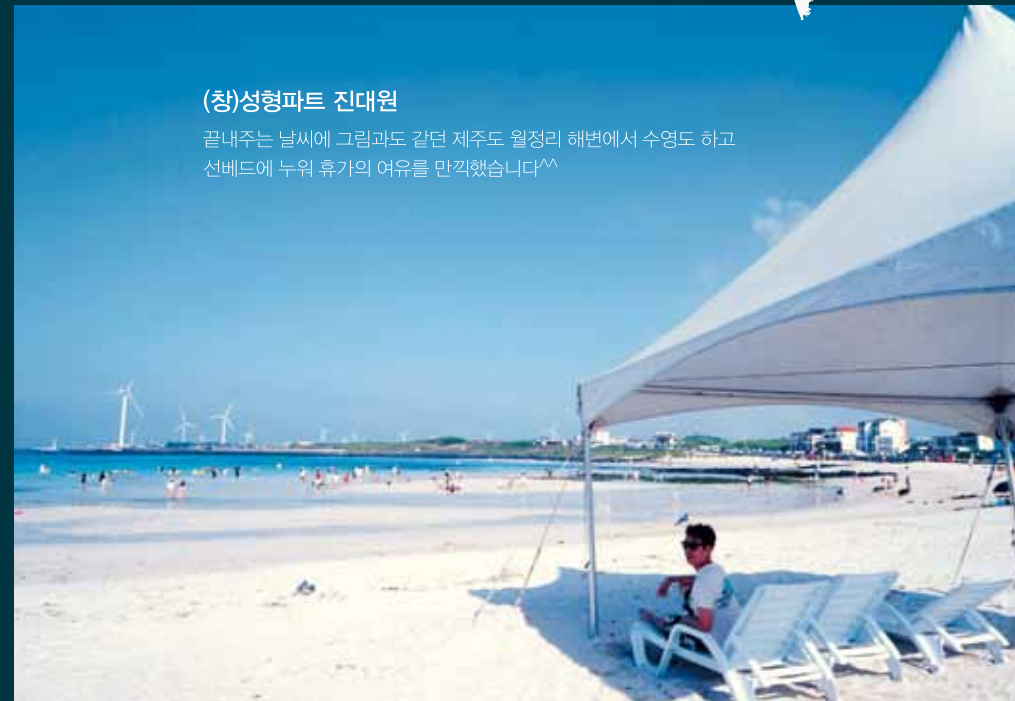
여름휴가, 어떻게 즐겼니?

나의 뜨거웠던 여름 이야기

Paradise

(창)성형파트 진대원

끝내주는 날씨에 그림과도 같던 제주도 월정의 해변에서 수영도 하고 선베드에 누워 휴가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창)원동파트 임윤선

동료들과 신나게 물놀이하고, 산악오토바이를 타며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OE개발2팀 조성운

Go Singapore! 여름에 동남아에 간 것 자체가 실수였지만 이열치열이죠. 레드닷 뮤지엄에서 우리 회사 타이어도 보고, 싱가포르 명물 칠리크랩도 먹고,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PCR파트 권창섭

남해 상주해수욕장에서 아들과 뜨겁고 단란한 한때!

생산기술팀
송명욱 과장

이번 여름휴가 때 제주도 성산일출봉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결혼, 출산 후 가족과 함께한 첫 여행이라 더 의미 있었습니다.



실차평가팀
김창규 책임연구원

제주도 정방폭포에서 내 여자들&내 여자들 (아내와 세 딸)과 함께. 사진에서도 행복함과 뿌듯함이 물씬 묻어납니다~





(창)인사총무팀 오동진 대리

말레이시아의 바투 동굴에서 만난
원숭이와 원숭이에 쫓은 넥센인.

컴파운드개발2팀
서진경

처음으로 어머니와 여행을
다녀왔어요. 오래도록 간직할
추억과 에피소드를 많이
남겨왔습니다.

OE영업1팀 홍재희 과장

이번 여름 휴가는 팀장님과 함께
서울사무소, 창녕, 양산 전부 다 찍고
돌아온 자전거 종주로~!

ENJOY your trip



공정연구팀 박정현

일본에서 유일한 보행자 전용 도개교인
블루윙 모지에서 한 컷!!



공정연구팀 탁세원

휴가를 맞아 고향 광주에 갔습니다.
친구와 섬진강에서 래프팅도 하고, 바나나
보트도 타고 왔습니다. 아직도 섬진강 물의
시원함이 느껴지는 듯하네요~



실차평가팀 김현수

실차평가팀의 레이서
3인방이 넥센 스피드
레이싱 4라운드에서
다녀왔습니다. 이준은
연구원은 아쉽게 참가하지
못했지만 서범석 연구원이
1위, 제가 3위에 입상해
기쁨을 나눌 수 있었어요.
취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료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매일
폭염주의보가 내렸던 터라
정말 '뜨거운'
여름이었네요.

광주지점 박재홍

반려견과 함께한 새만금방조제 드라이브.
멋진 일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드라이브 코스로 최고!



설비보전1파트 이희석 파트장

동생과 NIGHT RACE in Centum 2015에 참가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에 APEC 나루
공원에서 수영천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죠. 한여름 밤, 야광봉과 팔찌를 차고 많은
사람과 달린 이날이 큰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완주 후 들이킨 시원한 맥주 한 잔의 맛을
잊을 수 없네요. ㄹ

Summer time!

사우 추천 전국 맛집

얼큰하고 알싸하다! 중독성 강한 매운 요리 맛집

스트레스와 매운맛의
상관관계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는 매운맛이
아드레날린과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일까?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면 어김없이 매콤한
음식이 당긴다. 허겁이
얼얼하다 못해 아플지언정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중독성
강한 매운 요리 맛집을
소개한다.



강남지점 송호섭 과장

쿨피스 없으면 못 먹어 용두동 짬뽕미

작은 사거리를 중심으로 10여 곳의 주꾸미 식당이
밀집한 용두동은 무엇보다 매운 양념이 특징인 동네다.
그중 단골손님 많기로 유명한 '용두동 주꾸미' 본점은
들어가지마자 주문할 필요도 없이 인원수대로 상을
차려준다. 보기만 해도 매운 빨간 양념에 버무린
주꾸미와 콩나물을 익혀 갇잎 위에 올리고 마늘장아찌
한 알, 쌈장 한 젓가락을 싸서 입에 넣으면 이마와
코잔등이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용두동 주꾸미
골목에서는 집집마다 매운맛을 중화시키기 위한 메뉴를
내주는데, 이 집에서는 특이하게 카레를 준다. 차갑게
식힌 카레에 주꾸미를 푹 찍어 먹으면 그 맛 또한
일품이다. 더 맵게는 조절이 가능하지만 덜 맵게는 안
된다고 하니 매운맛에 다소 자신이 없다면 삼겹살이나 떡
사리를 추가해서 먹도록 하자.

메뉴 주꾸미볶음 1인분 1만 원, 삼겹살 추가 7천 원, 계란찜 5천 원,
볶음밥 2천 원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36길 10
문의 02-925-3127 영업시간 24시간



(창)TPM사무국 김종호 대리, 제품디자인팀 유다희 주임연구원

특제 양념으로 만들어내는 매운맛 신촌 양푼이 갈비찜

흔히들 말하는 ‘매운 맛집’ 중에는 캡사이신을 넣어 인위적으로 맛을 내는 곳이 많다. 그러나 신촌 양푼이 갈비찜은 거듭된 연구 끝에 개발한 특제 양념으로 맵싸한 맛을 낸다. 체인점이 아니기에 가능한 일. 더군다나 국내산 갈비와 고춧가루만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믿고 먹을 수 있다고. 힘줄 필요도 없이 갈빗대가 썩썩 빠지는 부드러운 갈비찜도 맛있지만 많은 이들이 엄지를 चु켜드는 메뉴는 해물 전복 갈비찜이다. 전복, 낙지, 새우, 꽃게, 버섯 등 각종 해산물이 들어가 있어 기가 허할 때 보양식으로도 그만이다.

메뉴 양푼이 갈비찜大 3만 5천 원, 목은지 갈비찜大 3만 5천 원, 해물 전복 갈비찜大 4만 5천 원 (모든 메뉴 순한맛, 보통맛, 매운맛 선택 가능) 위치 부산시 부산진구 서전로 10번길 27-2 문의 051-804-0990 영업시간 11:00~24:00



OE개발2팀 김민희

생바나나우유와 함께 먹는 바나나 떡볶이

집에서 만들어 먹던 즉석 떡볶이가 생각나는 날에 찾아보자. 주문 즉시 프라이팬에 조리해주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고, 맵기 조절도 가능하다. 중독성 강한 떡볶이 소스에 만두, 순대를 찌어 먹어도 좋고 아예 떡볶이에 순대를 넣어주는 순대떡볶이를 주문해도 좋다. 상호가 바나나 떡볶이인 이유는 우유와 바나나, 꿀을 넣은 생바나나우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색다른 메뉴를 먹어보고 싶다면 꿀떡이도 주문해보자. 100% 자연산 치즈를 올린 떡국 떡을 꿀에 찌어 먹으면 고르곤졸라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메뉴 즉석 떡볶이大 5천 원, 순대 떡볶음2인 4천 원, 떡먹는 생바나나우유 2천 5백 원 위치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15번길 32 문의 070-8264-6005 영업시간 11:00~21:00



재료연구팀 제한을 주임연구원, 구매팀 박현석 차장

속이 아플 정도로 강한 매운맛 짬뽕한그릇

이 집 짬뽕은 순(순한맛), 신(매운맛), 불(더 매운맛), 핵(제일 매운맛)으로 총 4단계로 나뉜다. 이 중 핵 짬뽕을 먹어본 사람들에게 따르면 맵기가 정말 ‘후덜덜’하다고, 그냥 먹기엔 속이 아플 수 있어 공깃밥을 추가해서 같이 먹을 것을 추천한다. 주문 즉시 조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조금 늦더라도 맛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주인장의 신념답게 매운 짬뽕 외에 군만두, 탕수육도 호평이 자자하다. 배달은 불가하나 넓은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으니 꼭 방문해보자.

메뉴 짬뽕 6천 원, 냄비짬뽕大 2만 5천 원, 탕수육大 1만 6천 원, 군만두1인분 4천 5백 원 위치 경남 양산시 북정로 20 문의 055-913-1162 영업시간 11:00~24:00



생산관리팀 신현명 과장, 자금팀 이상영 과장

닭발 마니아라면 필수 코스 호호닭발

부산 일대에서는 이미 소문이 자자한 맛집. 불 향이 은은하게 밴 닭발 한입에 시원한 조개탕 한 모금 떠 마시면 절로 술이 술술 들어간다고. 이곳의 좋은 점은 닭발이 아직 낮선 이들을 위해 날개 반, 닭발 반도 주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뼈를 발라 먹는 것조차 힘이 드는 ‘귀차니스트’을 위한 뼈 없는 닭발도 있으니 부담 없이 둘러보자. 소주와 조개탕이 포함된 세트 메뉴를 시키면 1천 원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길.

메뉴 닭발 1만 3천 원, 뼈 없는 닭발 1만 5천 원, 닭날개 1만 4천 원 위치 부산시 동래구 사직로 54-1(사직동점) 문의 051-501-5545 영업시간 16:00~01:30



OE개발2팀 김성훈 주임연구원, 정보전략팀 배성한

오동통한 게살이 한가득 초가집

찾기 힘든 골목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손님이 많아 예약이 필수인 꽃게찜 전문점. 살이 오를 대로 오른 꽃게 살을 발라 아삭한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그야말로 ‘게 눈 감추듯’ 요리가 사라진다. 꽃게찜과 함께 나오는 돌솥에서 밥을 퍼낸 뒤 미리 물을 부어놓으면 마지막에 얼얼한 입안을 누렁지로 달랠 수 있다. 꽃게찜 외에도 아귀찜, 코다리찜 등 매운맛은

기호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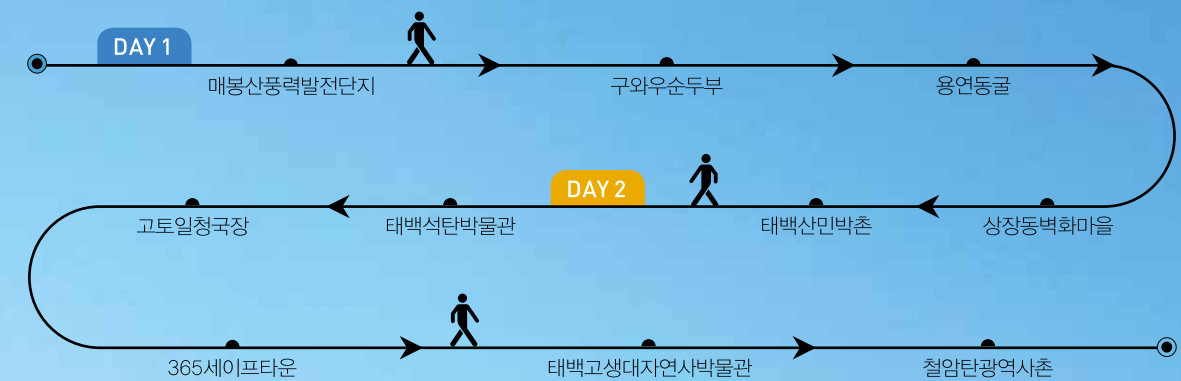
메뉴 꽃게찜大 3만 7천 원, 아귀찜大 3만 5천 원, 코다리찜大 3만 3천 원 위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17번길 32 문의 055-262-1199 영업시간 11:00~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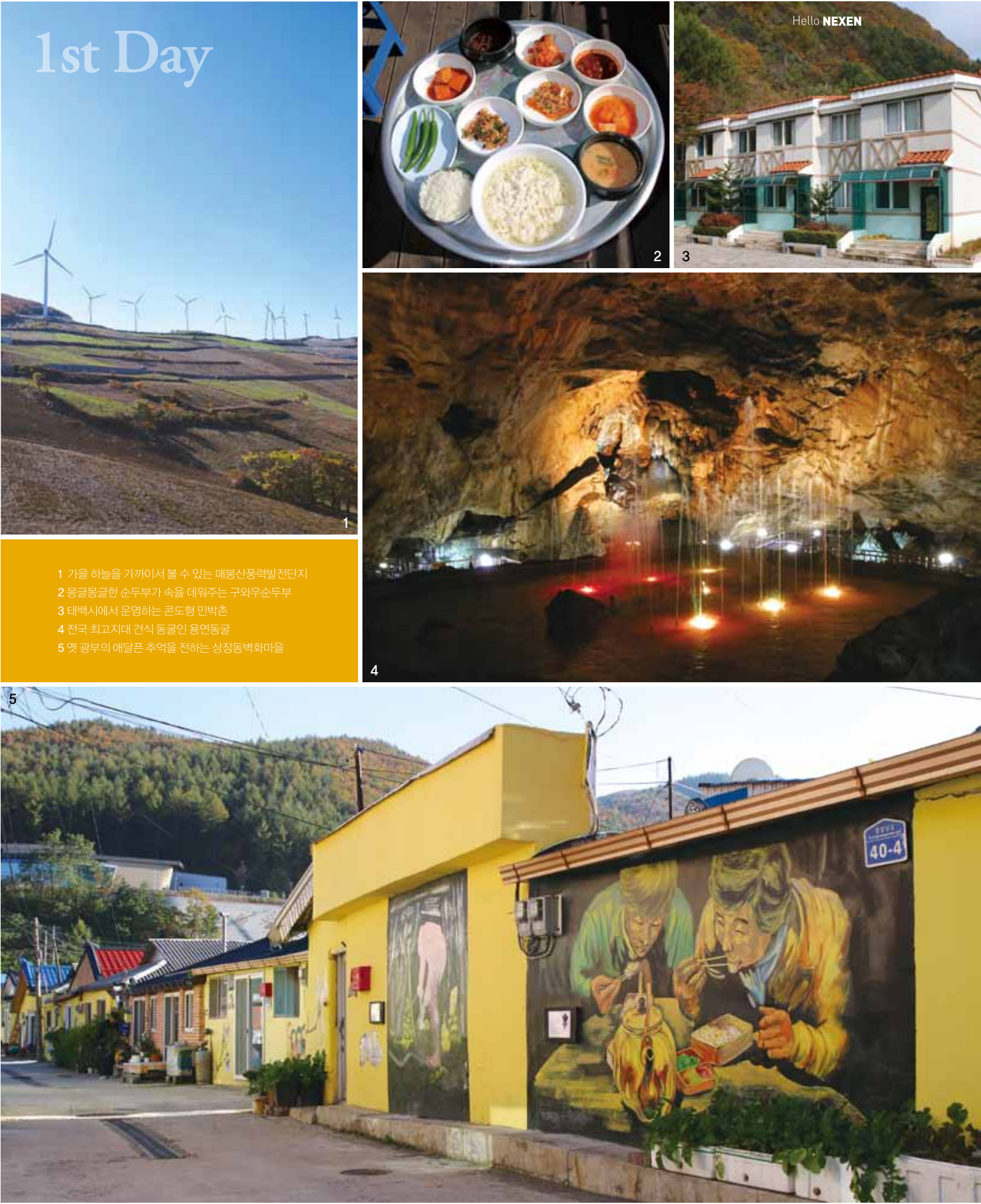


하늘과 맞닿은 낭만 여행지

강원 태백

가을이라 태백에 들러 단풍만 보고 왔다면 당신은 아직 여행 초심자임이 틀림없다.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부터 바람의 언덕, 태백석탄박물관, 용연동굴 등 발걸음 옮기는 곳마다 시냇바늘을 뒤로 혹은 앞으로 돌린 듯한 명지가 술하니 말이다.
갈 때마다 여러 얼굴로 여행객을 반기는 그곳, 강원 태백으로 떠나보자.





- 1 가을 하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매봉산풍력발전단지
- 2 몽글몽글한 순두부가 속을 데워주는 구와우순두부
- 3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콘도형 민박촌
- 4 전국 최고지대 건식 동굴인 용연동굴
- 5 옛 광부의 애달픈 추억을 전하는 상장동벽화마을

첫날은 '바람의 언덕'이라고도 불리는 매봉산풍력발전단지에 발자국을 찍자. 고랭지 배추밭으로 유명한 이곳에는 매봉산 정상 능선에 자리한 풍력발전기들이 이색적인 풍광을 연출한다. 점심은 아홉 마리 황소가 배불리 먹고 누워 있는 형상을 가진 구와우마을의 구와우순두부다. 미식가들을 불러 모은다는 이곳에서 푸짐하게 차려낸 순두부를 맛보자. 다음으로 향할 곳은 용연동굴이다. 전국 최고지대에 위치한 용연동굴은 당신을 환상의 지하 세계로 초대한다. 이곳에서 동굴 내부 중앙의 리듬분수를 놓치지 말 것. 용연동굴에서 20분을 달리면 상장동벽화마을에 도착한다. 석탄 산업이 한창이던 시절의 광부들 그리고 그들이 드나들던 술집은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이에 얹힌 이야기만은 벽화로 온전히 남아 있다. 여장을 풀고 하룻밤 머물 곳은 태백산을 올려다보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태백산민박촌이다. 개인이 아니라 태백시가 운영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아늑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첫째 날, 나무 냄새 따라 타박타박

10:30 매봉산풍력발전단지

매봉산 아래부터 정상 부근까지 펼쳐진 13만㎡의 고랭지 배추밭. 이와 조화를 이룬 매봉산 정상의 풍력발전단지를 보고 있노라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매봉산 정상에서 태백의 산줄기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 백두대간에서 낙동정맥이 분기하는 매봉산은 해발 1,303m의 높은 산이지만 걱정은 말자.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주소 강원 태백시 창죽동 산1-118

문의 033-550-2828

12:00 구와우순두부

새벽마다 만든 몽글몽글한 순두부로 유명하다. 커다란 대접을 채운 새하얀 순두부는 식성에 따라 먹는 방법이 다르다. 된장을 '빹작빹작' 끓였다고 해 이름 붙인 '빹장', 잘게 썬

김치, 파와 고추를 넣은 양념간장으로 간을 해 먹는데, 밥 한 공기쯤은 금세 없어지는 별미다.

가격 순두부 · 모두부 각각 6천 원

주소 강원 태백시 구와우길 49-1

문의 033-552-7220

13:00 용연동굴

주차장에서 동굴 입구까지 운행하는 용연열차에 몸을 싣고 용연동굴로 가자. 해발 920m에 자리한 전국 최고지대 건식 동굴을 만날 수 있다. 길이 843m의 동굴을 걷다 보면 석순, 종유석, 석주, 동굴 진주, 동굴 산호 등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동굴 내부 중앙의 대형 광장에서는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조명과 함께 물을 뿜는 리듬분수가 장관을 연출한다.

입장료 어른 3천 5백 원, 어린이 1천 5백 원, 용연열차 1천 원.

주차료 2천 원

주소 강원 태백시 태백로 283-29

문의 033-550-2727

15:30 상장동벽화마을

'탄광이야기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한때 4,000명의 광부가 살던 광산 사택촌이다. 골목 구석구석을 어슬렁거리면 키 작은 담벼락마다 그려진 벽화가 옛 광부의 애달픈 추억을 이야기해주는 듯하다. 석탄 산업이 전성기이던 시절, 광부의 고단한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벽화는 지역 예술가들과 마을 주민이 함께 그렸다.

주소 강원 태백시 태백로 1182 일원

문의 033-550-2604

17:00 태백산민박촌

태백산도립공원 초입에 위치한 이곳은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콘도형 민박촌이다. 겨울에는 태백산의 아름다운 설경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등지를 텃다. 가스레인지, 냉장고, 싱크대가 있어 취사가 가능하지만 조리 도구는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숙박료 6인 기준 비수기 6만 원, 성수기 8만 원.

주소 강원 태백시 천제단길 134

문의 033-553-7440

이튿날 여정은 석탄에 생소한 이들에게 훌륭한 현장학습장 역할을 자처하는 태백석탄박물관에서 시작하자. 바닥이 요동쳐 마치 탄광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 1전시관부터 지하 강도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선사하는 8전시관까지 체험거리가 풍성하다. 포만감을 느끼며 점심 식사를 할 곳은 태백석탄박물관에서 5분만 달리면 도착하는 고토일청국장이다. 밥상 위에 놓인 고추부각, 곰취장아찌, 갯감치, 냉이 등 7가지 반찬과 구수한 청국장을 맛보면 주인장의 숨씨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닫는다. 배를 채운 후에는 365세이프타운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놀이공원보다 박진감 넘치는 즐길 거리 덕분에 해묵은 스트레스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다. 365세이프타운의 알찬 체험 후에는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서 선캄브리아시대부터 지구온난화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생명체를 만나자. 마지막 목적지는 철암탄광역사촌이다. 석탄 산업 역사의 흔적이 되살아난 이곳에서 태백 여행의 마침표를 찍는다.

둘째 날, 이색 체험 찾아 거닐다

10:00 태백석탄박물관

동양 최대의 석탄 전문 박물관으로 각각의 테마를 가진 8개의 전시관을 갖췄는데, 어느 전시관도 허투루 지나칠 수 없다. 무엇보다 8전시실인 체험강도관을 향하는 엘리베이터가 압권. 문이 닫히는 순간 점등과 소동이 반복되고, 지하 강도로 내려가는 효과음까지 울려 퍼져 긴장감까지 감돈다. 이내 문이 열리면 본격적인 지하 강도 체험이 시작된다.

입장료 어른 2천 원, 어린이 7백 원 **주차료** 2천 원

주소 강원 태백시 천제단길 195

문의 033-550-2743

12:00 고토일청국장

연리지공원과 지척 간인 이곳은 화확조미료를 0.1g도 첨가하지 않았다. 주인장이 토종 콩으로 직접 만든 청국장의 담백함과 구수함은 자다가도 생각날 정도다. 이곳에서

청국장을 맛본 이들은 어김없이 택배 주문을 하는 소문난 맛집. 직접 맛보면 “역시”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을지도.

가격 청국장 8천 원, 두부구이 7천 원, 더덕구이 1만 3천 원

주소 강원 태백시 태백산로 4587

문의 033-553-3232

13:00 365세이프타운

‘안전은 학습이 아니라 체험이다’란 슬로건 아래 안전체험관, 챌린지월드, 강원도소방학교로 구성된 곳. 특히 안전체험관은 스릴 넘치는 경험을 선사한다. 진도 8 이상의 강진을 체감할 수 있는 지진 체험, 보트를 타고 거친 비바람과 사투를 벌이는 풍수해 체험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해 지루할 틈이 없다. 매주 월요일 휴관.

이용료 자유이용권 어른 2만 2천 원, 어린이 1만 8천 원

주소 강원 태백시 평화길 15

문의 033-550-3101

15:30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생대 지층 위에 건립된 박물관. 박물관은 1·2층 전시실과 지하 1층 체험전시실, 기획전시실 등으로 구성됐는데, 거대한 공룡 골격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주변에는 고생대 퇴적·침식 지형, 삼엽충, 완족류 등이 즐비해 박물관 관람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현장 체험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입장료 어른 2천 원, 어린이 1천 원

주소 강원 태백시 태백로 2249

문의 033-581-3003

16:30 철암탄광역사촌

석탄 산업 호황기의 흔적을 온전하게 간직한 곳. 1960~1970년대 광부들이 살았던 까치발 건물 그리고 그곳에 자리했던 선술집, 구멍가게, 다방, 식당 등 상가가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폐점한 가게쯤으로 여겨 지나치면 큰일. 각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이색적인 전시 공간이 시선을 빼앗는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휴관.

주소 강원 태백시 동태백로 410-2 일원

문의 033-240-1351





정련파트 백종욱 사우 부부의

우리 두 사람, 오붓한 스파 타임

엇된 얼굴의 부부가 서로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오랜만에 갖는 둘만의 시간이라 일본일초가 소중하게 느껴진 걸까. 바쁜 업무에, 끝없는 육아에 힘들었을 백종욱 사우 부부를 위해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여버릴 스파와 마사지를 준비했다.

아름다운 그대에게 달콤한 휴식을

부산 광안리 해변에 위치한 커플 스파 공간. 백종욱 사우와 그의 아내 박혜정 씨가 사람들로 왁자지껄한 바다를 내려다보며 스파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내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백종욱 사주의 눈빛이 사뭇 다정하다. 젊은 나이에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한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나 더욱 애뜻한 느낌이다.

“연애할 때도 둘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아내는 부산 영도의 사회복지시설에 상주하며 근무했고 저는 양산에 살았거든요. 거리도 거리지만 서로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번 행복나들이도 남편과의 오붓한 시간이 못내 아쉬웠던 박혜정 씨가 신청했단다. 사보 촬영을 귀여운 핑계(?)삼아 오랜만에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고 싶었다고.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 1년을 연애하는

동안 놀러 간 걸 한 손으로 꼽을 정도라니 말 다했다. 결혼 후 바로 첫째 선우를 낳았고 이젠 둘째 라희까지 키우느라 여행은커녕 쉬기도 쉽지 않은 상황.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이 아내 박혜정 씨에겐 마냥 고맙고 벅차다. “남편은 늘 다정하고 배려가 많은 사람이예요. 사소한 걸 기억해서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마음이 열렸죠. 늘 웃는 얼굴에 책임감도 강해서 결혼을 결심했네요.”

근무지에 상주해야 하는 혜정 씨의 여건상 이 부부는 결혼 후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떨어져 살아야 했단다. 임신한 혜정 씨에게 남편의 손길이 필요한 건 당연지사. 은연중에 먹고 싶은 음식을 얘기하면 백종욱 사주가 퇴근 후 음식을 들고 한달음에 달려오곤 했다고. “매콤한 음식이며 통닭이며 안 사온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족발이랑 간소새우 사다 준 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먼 거리인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곧바로 달려오니 정말 고마웠죠.”





우리 부부 피로를 한 방에 날려버려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스파에 몸담글 시간이다. 아른아른 쾅진 초와 물위에 떠 있는 장미 꽃잎, 준비된 레드와인 두 잔에 어색한 듯 들어서던 부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둘이 있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며 멍쩍은 듯 혜정 씨가 웃음을 터뜨린다.

“일상적인 얘기하고 말장난도 치면서 앉아 있으니까 재밌어요. 근데 연애했때 기분보다는 뭔가 낯선 남자의 느낌이 들기도 하고… 호호호.”

30여 분간의 스파로 몸을 부드럽게 만든 후 마사지를 받을 차례. 목덜미부터 어깨, 등, 다리까지 뭉친 근육을 싹 풀어내는 시간이다. 전문가의 손이 백종욱 사우의

종아리를 누르자 두 손을 파닥파닥! 아내 앞이라 소리를 지르진 못하고 연신 “음~” 소리를 삼킨다. 오히려 옆에서 마사지를 받는 혜정 씨는 시원하고 편안한지 눈이 스르르, 잠이 오는 모양이다.

“제가 더 아파한 것 같은데 아까 전문가분이 아내의 골반, 어깨가 틀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쓰럽죠. 앞으로 아내에게 더 잘해줘야겠어요.” 백종욱 사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혜정 씨가 “그동안 축적된 피로, 오늘 싹~ 풀어서 개운하다”며 남편의 손을 토닥였다. 안타까워하는 남편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은 아내의 깊은 마음이 담긴 토닥임이었다. 벌써 결혼 3년 차 부부. 앞다투어 결혼 잘했다고 말하는 걸 보니 앞으로도 꼴이 똑똑 떨어질 것 같다.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봅시다

“아, 처음엔 이 결혼 왜 했나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초반에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아니, 이런 반전이. 부부가 더없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전쟁 같았던 신혼 초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취하며 혼자 사는 데 익숙해진 남편과, 공동체 생활로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향이 짙었던 아내의 생활 습관이 부딪쳐버렸다는 것. 몇십 년간 다르게 살아온 남녀가 어떻게 한 번에 잘 맞겠느냐마는 처음엔 각자의 화해 방식도 달라 계속 마찰이 생기더라. 그러다 백종욱 사우가 ‘지는 게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니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일단 아내의 의견에 따르고 도우면서 점점을 찾기로 마음먹었죠.”

아이 육아 방식에서부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생각까지, 살면서 종종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지만 이 부부는 아내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서로 한발씩 양보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 서로를 더욱 이해하면서 간격을 좁혀가는 중이란다. “남편이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편이에요. 제가 힘들어 보이면 좀 쉬라면서 아이들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남편도 힘들 텐데 그렇게 해주니 짝하고 고맙죠. 흥흥한 뉴스를 보다가도 남편과 아이들이 블록 놀이를 하는 우리 집의 평화로운 광경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행복이 모두 상대방 덕이라며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던 백종욱 · 박혜정 부부. 예쁜 선우, 라희와 함께 앞으로도 행복한 날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㉞



클릭 재테크

글
이천희(〈세관공매 재테크〉 저자)

Hello NEXEN

누구나 알기 쉬운 틈새 재테크

세관공매가 뜬다!

병행 수입, 해외 직구에 이어 세관공매가 최근 '독쟁이 쇼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해외 명품 가방은 물론 다양한 물건을 시중가의 절반 이하로 살 수 있는 세관공매. 기본적인 개념부터 진행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세관공매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입국 시 압수한 물건을 관세청에서 경매를 통해 처분하는 것이다. 각 세관 창고에는 수입된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법으로 물건을 들여와 국내에 반입되지 못한 물건이 쌓여 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을 경우 압수된 밀수품이 경매의 대상이 된다. 다른 표현으로는 '체화공매'라고도 하며 '공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공공의 목적으로 경매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을 위해 재판매용으로 구입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세관공매에 나온 물건은 모두 정품이기 때문에 믿고 낙찰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관공매가 뜨는 이유

직장인 이 모 씨(35)는 안젤리나 졸리가 착용해 유명해진 '루이 비통 앗치' 가방을 세관공매로 낙찰받았다. 신제품 정가가 374만 원이지만 여러 차례 유찰된 후 정가의 43%인 160만 원에 낙찰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는 주식, 경(공)매, NPL(부실채권)이 재테크의 대표적인 수단이었다면 최근에는 세관공매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조금만 공부하면 소규모 자본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든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는 세관공매를 통해서
소규모 자본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세관공매로 처리될까?

▶ 일반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

수입자 또는 여행자가 외국에서 물품을 반입한 후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 통관 또는 반송하지 않은 경우, 관세청은 이러한 물품을 강제로 매각해 국가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잔금은 소유권자(원수입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러한 물품을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이라고 한다.

▶ 긴급 공매 물품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장치기간 경과 전이라도 매각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 공매 물품'이라 한다.

- ① 살아 있는 동식물이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 ② 다른 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③ 기간 경과 시 실용 가치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 ④ 지정장치장 · 보세창고 · 보세구역 외 장치장에 반입되어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 되지 못한 물품으로서 화주의 요청이 있는 물품

세관공매 시작하기

세관공매의 기본 원칙은 경쟁입찰이다. 경쟁입찰로 매각할 경우 매각되지 않았을 때 5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단, 긴급 공매의 경우 5일 이상의 간격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그 예정 가격은 최초 예정 가격 100분의 10 이내로 입찰 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공매 예정 가격 체감은 제2회 입찰 때부터 하되 체감 한도액은 최초 예정 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때 최초 예정 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세액 이하의 금액으로는 체감할 수 없다.

회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예정 금액	100%	90%	80%	70%	60%	50%

SOLUTION

▶ 예외: 수의계약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① 1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다음 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 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을 때
- ② 공매 절차가 종료된 물품을 국고 귀속 예정 통고 전에 최종 예정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려는 이가 있을 때
- ③ 부패, 손상,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상품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 ④ 1회 공매의 매각 예정 가격이 50만 원 미만일 때
- ⑤ 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함이 공익에 반하는 때

입찰 종류

크게 일반입찰(방문 입찰) 공매와 전자입찰(인터넷 입찰) 공매 방식으로 나뉜다. 과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했으나 구매 희망자가 세관공매 일자에 맞춰 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서류 입찰로 판매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사는 구매 희망자의 입찰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면이 있었다. 하여 2005년부터 전자입찰을 추가로 도입했다. 일반입찰 공매 대상 물품에는 ① 인터넷 거래가 금지된 품목, ② 술, 담배, 총포, 도검류 등 특정 물품, ③ 체화공매 시스템상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④ 한 B/L(선하증권)당 2개 이상의 경우, ⑤ 여행자 휴대품 등이 있다. 이러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전자입찰에 의함이 기본 원칙이다.

절차

넓은 의미의 세관공매에는 협의의 의미를 가진 체화공매와 보존복지공단공매가 있지만, 일단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자입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 ① 관세청 통관 포털 유니패스(portal.customs.go.kr)에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한다.
- ② 입찰 공고를 확인해 입찰 대상 물품을 결정한다.
- ③ 입찰 전 입찰자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④ 입찰서 작성 후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서를 제출한다.
- ⑤ 자신의 낙찰자 선정 여부를 확인해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낙찰 잔금을 납부하고, 선정되지 않았을 땐 보증금 납부 시 입력된 환불 계좌로 보증금이 환불되었는지 확인한다.
- ⑥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낙찰 물품을 반출한다.



반드시 유의할 점

▶ 공매 목록 보는 법을 숙지할 것

공매 목록에는 반입 일자, 품명(상품명), 규격, 수량, 중량, 장치 장소(보세구역) 및 공매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반입 일자는 해당 물건의 보관 기일을 추측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보증금 부족에 유의할 것

입찰 시 입찰 금액의 10%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산 오류로 인해 10%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가 된다.

▶ 물품보관소에서 현품을 꼭 확인할 것

발품을 팔아야만 제대로 된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다. 직접 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받을 경우 생각한 것과 달라 낭패를 볼 우려가 있다.

▶ 공매 조건부 매각에 주의할 것

공매 조건이 없는 물건도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공매 조건을 갖추어야만 반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약품류(한약재 포함)는 약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 의약품 제조업체, 의료 용구 제조업체 등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주의 물건 구매에 신중할 것

공매에 나오는 물품은 세관에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보관 기간을 거친다. 그렇기 때문에 변질되기 쉬운 물건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의류나 공산물처럼 같이 보관해도 크게 변질되지 않는 물건을 고르는 것도 요령이다. 또한 케이스가 없는 제품은 물건의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완전한 새 제품을 원한다면 케이스까지 다 갖춘 물건을 고르는 게 좋다.¹⁰⁾

Tip 세관공매 시 알아야 할 용어

경쟁입찰 경쟁자로 하여금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 내용을 문서로 표시하게 한 뒤 낙찰인을 심사·결정하는 것
수의계약 매매계약 등을 할 때 경매나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방을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
보세구역 수입 절차를 받지 않은 화물이나 수출 절차를 받은 화물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놓아둘 수 있는 지역
체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
장치기간 통관하고자 하는 수출입 물품을 보세구역 안에 임시 보관하는 기간
지정장치장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
유치물품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 통관이 보류된 물품
보세창고 특별보세구역의 하나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 물품이나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

바야흐로 걷기 본능을 일깨울 때

작렬하던 태양에 노란 기운이 서리고 산의 빛깔이 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 요즈음. 서늘한 바람에 계절이 옷을 갈아입으니 잠자고
있던 걷기 본능도 불끈 솟아나지 않는가. 걷는다는 것, 모든 행위의
주도권을 내 몸으로 돌리는 동시에 건강 또한 증진시키는 일이다.

걷기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두 다리로 서서
걷는다는 것. 발과 다리의 존재
이유는 걷기를 위한 것으로,
걷지 않으면 그 기능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다리뼈가 부러져 한두
달쯤 깁스를 하였다가 떼어내면 다친
쪽의 다리가 놀라울 만큼 가늘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전문용어로
‘폐용성 위축’이라고 한다.

다리근육은 오랫동안 걸을 수 있게
하는 느린 근섬유와 계단을 오르거나
떨 때 필요한 빠른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계속 걸으며
계단이나 언덕길을 오르내리거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모든 근섬유를
균형 있게 발달시켜준다.
걷기는 근육 강화뿐 아니라
인체에 여러 가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심장을 강화시키고
능률을 높여 체내의 혈액순환을
더 빠르고 활발하게 해준다. 런던
국립심장포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일간 30분 이상을
걷는다면 심장마비의 37%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의 관리에도 탁월하다.
콜레스테롤에는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H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과
결탁하여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LDL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꾸준한
걷기를 통해 HDL콜레스테롤을
늘리고 LDL콜레스테롤을 줄일 수
있다.

운동 효과를 높이는 파워워킹

파워워킹은 일반 걷기와 달리기의 단점을 보완해 만든 운동이다. 일반 워킹이 체지방 소모율이 높은 반면 운동 강도가 약해 체력이나 근력 강화에 부족함이 있다면, 시속 6~8km로 걷는 파워워킹은 심폐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step 1** 손은 달걀을 쥐듯이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고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도록 한다.
- step 2** 팔꿈치는 L자 또는 V자로 굽혀서 90°를 유지하고 팔은 앞뒤로 힘차게 흔드는데, 이때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지거나 옆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step 3** 발은 뒤꿈치-수평-엄지발가락 순으로 바닥에 닿도록 하며, 보폭은 자신의 키에서 100cm를 뺀 정도가 적당하다.
- step 4** 무릎은 곧게 편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구부리고, 양 무릎이 스치는 느낌으로 11자 모양으로 걷는다.
- step 5** 어깨에 힘을 빼 편안하게 팔이 움직이도록 하고, 가슴과 등은 곧게 편다. 복부를 끌어당겨서 배에 힘을 주고 시선은 15m 전방에 둔다.
- step 6**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이 좋지만,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자연스럽게 한다.

걷기가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놀라울
만큼 다양하다.



다이어트에는 달리기보다 걷기

살 빼기를 목적으로 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달리기보다 걷기가 좋다.
걷기의 체내 지방 연소율이 더 높기
때문. 30분간 빠르게 걸으면 지방과
탄수화물이 소비되는 비율이
50 대 50이지만, 달리면 그 비율이
30 대 70 정도가 된다. 달리를
하면 일단 체내에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소비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거의 전환되지 않는다.
탄수화물 소비로 몸이 급격하게
지치는 반면 지방 소비율은 약간
증가할 뿐이다.
이에 비해 걷기는 운동 시작 후
15~30분까지는 탄수화물이 주로
소비되다가 이후부터는 지방
소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즉, 같은 양의 칼로리를 각각 걷기와
달리기로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걷기는 체지방을 연소시키므로 살이
빠지는 반면 달리는 체지방을
별로 연소시키지 않으므로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단,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운동을 30분 이상
지속해야 한다는 것. 걷는 방법도
그냥 걷기보다는 파워워킹으로
속도를 내어 걸으면 운동 효과를
배가시켜 칼로리 소모량을 더욱 늘릴
수 있다.④

갈아두면 절대로 유용할

넥센인 추천 애플리케이션

어느 누가 스마트폰은 오로지 통화와 게임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던가. 스마트폰을 진정 똑똑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들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공개한다. 자, 주목하자. 분명 알아두면 유용할 터이니.

출장지에서도 쾌적한 하룻밤을 데일리호텔

‘당일 팔리지 않은 방은 가치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만든 앱으로, 고급 호텔을 최대 70% 할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통상 오전 9시에 예약할 수 있는 호텔이 리스트업되며, 상세 사진을 보며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를 수 있어 좋다. 체크인 시간, 호텔 위치 정보 등이 제공되며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베스트 드라이버를 꿈꾼다면 Tire Expert

타이어 크기 계산기뿐 아니라 타이어 모델 대부분의 정보를 장착한 앱. 타이어와 휠 사이즈를 넣으면 타이어 폭, 반경, 직경, 실제 속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알맞은 타이어 선택을 위해 유명 타이어 브랜드와 상품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 운전자에게는 필수 앱이라 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에서만 다운로드 가능.



예쁜 여자 친구 얼굴을 더 예쁘게 VSCO Cam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 혹은 몰래 찍은 그녀의 사진, 잘 나온 것 같은데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부족하다면 ‘VSCO Cam’을 사용해보자. 다양한 필터 효과만으로도 요즘 유행하는 ‘#감성사진’을 만들 수 있다. 무료로 설치해도 괜찮은 필터는 유료로 구매해야 했던 여타 앱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무료 필터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퀄리티가 보장된다.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는 안녕~ 뭐야 이 번호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스팸 전화나 문자를 안 받아본 사람이 있을까? 꾸준히도 걸려오는 광고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였다면 ‘뭐야 이 번호’를 설치하자. 수신 즉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뿐더러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좋아요 · 싫어요’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뭐야 이 번호 외에도 후스콜, 후후 등도 많은 이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기호에 따라 골라서 사용할 것.



불려도 올 생각 없는 콜택시는 그만 카카오택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앱. 그만큼 써보면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행하는 순간 내 위치가 바로 입력되어 기사님께 일일이 주소를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도착할 차량 번호, 도착까지 예상 소요 시간도 알려준다. 택시 통행량이 뜸한 심야 시간대나 외진 곳에서라면 더욱더 유용할 듯.^⑩



중요한 문서가 집 컴퓨터에 있다면 Team Viewer

밤새 작성해두었던 보고서를 집 컴퓨터에 저장해둔 채 출근했다고? 집에 다녀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작성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것 참 답답하다. 이럴 때 ‘Team Viewer’를 이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원격제어 앱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 PC에 접속하면 얼마든지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단, 연결할 컴퓨터와 모바일에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북극여우를 지키는 습관,

은빛 여우 망토 담요를 덮어요

은빛의 털은 갓난아이의 동그란 볼처럼 한없이 보드랍기만 할 것 같습니다. 빛의 반사에 따라 붉은 빛깔을, 검은 빛깔을 띠는 눈동자는 보석처럼 영롱하기만 합니다. 쫓긋 솟은 두 귀는 자신들이 천상에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라 호기심이 많은 지상의 생명체임을 애써 증명하려는 듯 보입니다. 빛나는 설원을 배경으로 한 폭의 그림이 되는 북극여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개체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서 북극 저지대에 살던 붉은여우가 더 좋은 사냥터와 휴식처를 찾아 북극으로 이동하고

있답니다. 북극여우는 여우 중 가장 온순하고, 몸집도 작아 붉은여우와의 생존경쟁에서 뒤처지는 처지입니다. 다른 동식물에게는 쉽게 품을 내주지 않은 땅에서 수백 세기 세대를 거듭하며 냉혹한 환경에 적응해왔지만, 불과 1세기도 안 되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다다른 것입니다. 짧은 가을이 지나면 곧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난방 온도를 높이기 전,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북극여우를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잠깐의 안락함이 지구 끝



어느 동물의 멸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고요. 하지만 추위를 마냥 참을 수는 없는 일이죠. 터치포굿의 '은빛 여우 망토 담요'를 어깨에 걸쳐보세요. 은빛 여우 망토 담요의 부드러운 털은 영하 80℃를 견디는 북극여우의 털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담요가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폭신한 방식으로, 귀여운 망토로도 그 쓰임이 다양하니 지구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언제, 어디서나 더할 나위 없는 아이템이 되어줄 것입니다.🐾

Epilogue

참여해주세요

〈헬로우넥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회사, 팀 내 이슈 자랑하기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및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exentire.korea), 엽서 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10월 중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은 11월 15일까지 아래 사보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 연락이 없을 시 당첨은 무효 처리됩니다.

● 사보 담당자
055-370-5283
soo0526@nexentire.co.kr

헬로우넥센 로고를 찾아보세요!

사보 곳곳에 숨어 있는 헬로우넥센 로고를 찾아 페이지를 모두 적어 보내주세요.
(총 3곳. 엔진오일, 봉사활동, 패러글라이딩)



지난 호 정답

●16p



●20p



●55p



퀴즈 당첨자

- 김화영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로
- 이현수 경기 평택시 참이슬길
- 이미연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84나길
- 유심덕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 강숙인 전북 군산시 대야면 서약길
- 정현준 충남 논산시 대교동
- 장명화 경남 양산시 소주화야로
- 우윤숙 대구시 달서구 죽전1길

- 박주정 경남 창원군 창녕읍 조산1길
- 정소유 대구시 북구 구암로60길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사내 독자 / 사외 독자)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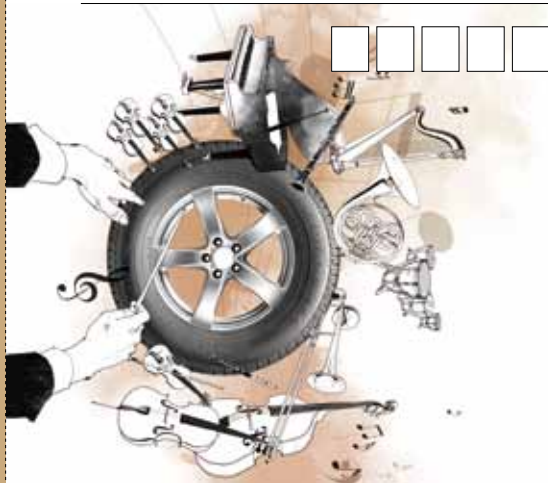
연락처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1.1~2015.12.31

양산우체국 승인
제 23호



받는 사람

경상남도 양산시 총렬로 355

넥센타이어㈜ <헬로우넥센> 사보 담당자 앞

(전화 055-370-5283/soo0526@nexentire.co.kr)

NEXEN TIRE 넥센타이어

5	0	5	9	2
---	---	---	---	---

NEXEN TIRE 넥센타이어 <헬로우넥센>에 의견을 보내주세요.

- <헬로우넥센>에 전하고 싶은 의견
(좋은 기사, 아쉬운 기사, 바라는 점 등)
- 참여를 원하는 분은 사연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 헬로우넥센 로고가 숨어 있는 페이지를 적어주세요. (총 3곳)

관리받는 정수기처럼 타이어도 렌탈하자!

매일 쓰는 정수기는 꼼꼼하게 관리 받으면서 매일 타는 타이어는 왜 관리 받지 않았을까요?

이제 타이어도 관리 받는 렌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안전점검 서비스까지

신개념 타이어 렌탈서비스, 넥스트 레벨을 만나 보세요!



월 1만원에 최고급 타이어를 가져다!



월 1만원도 많다? 제휴카드만 있으면 0원!



31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서비스 무상 제공
ZIC 프리미엄 합성유 3회 무상제공 등



제휴카드로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 추가 혜택까지

엔진오일 무상교환

고급 프리미엄 합성유 ZIC X7
3회 무상 제공 (4개 계약 기준)



정기 방문점검 무상 서비스

(차량 10대 항목 점검)

Door to Door
무상 서비스

고객이 계신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차량을 인수 받아
점검 후 되돌려 드리는
진정한 Door To Door 무상 서비스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차량 10대 항목 점검)



타이어 위치교환
무상 서비스



경정비 공임
30% 할인

무상점검 외 교체비용 발생 시
정비 공임의 30%할인

N' Fera AU5(중형) 월 9,100원

•엔페라 215 55 17 / 등록비 5만원, 36개월 중형차량 계약 기준
제휴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시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전화 1855-0100

넥스트레벨



NEXT LEVEL

신개념 타이어 렌탈서비스 - 넥스트레벨